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 사 학위논문

코로나 시대, 학생의 주관적 학업성취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by students in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2023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 학과 한국학 전공
가 몽 영

코로나 시대, 학생의 주관적 학업성취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지도 교수 은 기 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 학과 한국학 전공
가 몽 영

가몽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 년 2 월

위 원 장 _____ 정 종 호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박 지 환 _____ (인)
위 원 _____ 은 기 수 _____ (인)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코로나 시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므로 학업성취 격차 확대의 요인을 측정하고 이런 요인들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학업성취 평가에 어떻게 다르게 적용할 것인지를 밝혀 보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한국 여성가족부가 2020년에 청소년 가구 5,027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13~18 세응답자로 구성된 836 개의 사례를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확인되어 여자일 수록 본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의 월평균 소득, 부모가 자녀에 관심 정도, 주중에 매일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주중에 매일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 매주 사교육을 받은 시간 그리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학습공간을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어 모두 학생이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런 요인들 중 주중에 매일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주중에 매일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만 학업성취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미한 성별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 수록 여학생의 학업 성취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는데 남학생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 수록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본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는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유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자녀의 관계, 자녀의 사교육 참여 정도, 집에서 원격 수업 여건 등에 해당되는 변수들이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학업성취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음 알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평가가 달라져 있으며 부모-자녀의 관계가 학업성취 평가에 끼치는 영향은 여학생집단과 남학생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에서 계속 심화되어 있는 교육 격차 확대 문제를 밝혔으며 성별, 가정배경, 사교육, 원격교육 등 여러가지 영향요인을 분석하므로 교육 불평등의 경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주제어 : 코로나 19, 학업성취, 성별 차이,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 원격 수업

학 번 : 2020-25972

목 차

제 1 장 서론 **1**

1.1 문제제기 1

1.2 연구목적 및 연구 필요성 16

1.3 연구의 구성 19

제 2 장 이론적 배경 **19**

2.1 핵심 개념 설명 19

가. 교육 불평등 19

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21

다. 원격수업 22

라. 학업성취 23

2.2 학업성취에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 검토 24

가. 가정 배경 26

나. 부모-자녀 관계 33

다. 사교육 35

라. 코로나 19 이후 학업성취 관련 연구 37

2.3 학업성취에 성별 차이 관련 선행연구 검토 41

제 3 장 연구방법 **44**

3.1 연구자료 44

3.2 변수선정 46

3.3 분석모형 51

3.4 가설 및 연구 설계 52

제 4 장 연구결과 및 분석 53

4.1 차이 검정 53

가. T-검정 53

나. 일월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56

4.2 상관관계분석 58

4.3 회귀분석 및 가설검증 62

제 5 장 결론 71

5.1 연구결론 및 논의 71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제언 75

참고문헌 76

ABSTRACT 81

표 목 차

<표 1-1>취학 보편화 달성년도 2
<표 1-2> 코로나 19 와 관련된 교육부의 주요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9
<표 3-1> 분석대상자의 기본적 분포 45
<표 3-2>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 47
<표 3-3> 연구에 활용하는 각 변수별 기술통계 결과 49
<표 3-4>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수준별 학생분포(N=836)..... 51
<표 4-1> 학업성취 평가에 두 집단 간에 평균차이 검정..... 54
<표 4-2> 학업성취 평가에 두 집단 간에 평균차이 검정..... 54
<표 4-3> 학업성취 평가에 두 집단 간에 평균차이 검정..... 54
<표 4-4> 학업성취에 두 집단 간에 평균차이 검정 55
<표 4-5> 학업성취 평가에 두 집단 간에 평균 차이 검정..... 55
<표 4-6> 학업성취 평가에 두 집단 간에 평균 차이 검정..... 56
<표 4-7> 학업성취 평가에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 검정..... 56
<표 4-8> 부와 보내는 시간에 따른 학업성취 평가의 평균차이 검정... 57
<표 4-9>모와 보내는 시간에 따른 학업성취 평가의 평균차이 검정..... 57
<표 4-10> 가구 월평균 소득에 따른 학업성취평가 의 평균차이 검정. 58
<표 4-11> 상관관계분석 61
<표 4-12>학업성취 평가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64
<표 4-13> 연구모형 가설 1 검증 결과 64
<표 4-14> 연구모형 가설 2 검증 결과 65
<표 4-15> 학업성취 평가에 영향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성별 차이.. 68
<표 4-16> 성별에 따라 회귀계수 차이 검정 69
<표 4-17> 연구모형 가설 3 검증 결과 70

그 림 목 차

<그림 1-1> 전체학생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
<그림 1-2>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 4
<그림 1-3> 가구 소득수준별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5
<그림 1-4> 소득분위·가구주 학력별 자녀 사교육비 6
<그림 1-5> 성적 구간별 전체 고등학생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6
<그림 1-6> 학생 성적 구간별 전체학생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7
<그림 1-7> 교사들이 원격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격차 인시..... 11
<그림 1-8>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 12
<그림 1-9> Global Gender Gap Report 2022: Report of Korea 15
<그림 1-10> Average length of education in South Korea from 1980 to 2020, by gender(in years)..... 15
<그림 3-1> 학업성취 평가에 영향요인 관련변수 모형 51

제 1 장 서론

1.1 문제제기

가. 교육 불평등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오래 되어 있다.

중국에서 전해 온 유가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 이념, 인재 선발, 교육 제도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가 사상에 의하면 교육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며 인재를 키우는 활동이며 사회경제활동의 출발점이라고 해서 이를 굳게 믿고 있는 한국인들은 교육을 극히 중요시하여 교육에 대한 갈망이 오래전부터 한국 문화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지식과 인재가 중요시한다는 좋은 사상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동시에 "萬般皆下品, 唯有讀書高 "(모든 것이 다 천하고 글 읽는 것만이 귀하다) 라는 극단적인 사상도 한국 사회에서 많이 퍼져 나갔다. 따라서 생겨난 입시경쟁, 학벌 차별 등 폐단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다.

한국 전쟁 이후 정부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경쟁 속에서 우위를 유지하려고 경제개발과 함께 교육을 크게 발전시켜서 산업구조의 변화[1]와 고등교육의 확대는 서로 맞물려 나타났다.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교육 분야에 예산 지출을 많이 늘려 교육 기회 확대 또한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경주하였다. 크게 세

[1] 6·25 전쟁은 한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던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가 미국의 경제원조와 그리고 미국 주도 아래 이루어진 유엔의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전후 경제를 복구해 나갔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전쟁(韓國戰爭)>

가지 정책 모형으로 보면 첫째, 중등교육 단계의 입시를 폐지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 둘째,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학교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 셋째, 저소득층과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등록금·교과서비 면제 등을 우선 적용한다. 이런 정책 덕분에 한국 교육은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거뒀다. 취학률과 상급학교 진학률이 90%를 넘는 것을 완전입학으로 규정한다면, 한국에서 초등교육은 1957 년, 중등교육은 1979 년, 고등교육은 1985 년에 보편화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종재 외, 2006).

<표 1-1>취학 보편화 달성년도

취학률 90%달성연도		진학률 90% 연도	
초등학교	1957 년		
중학교	1990 년	초등 -> 중학교	1979 년
고등학교	1999 년	중학교 -> 고교	1985 년
고등교육	2000 년	고교 -> 고등교육	1995 년

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얻기 어려운 희소자원이 아니라서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교육 기회의 확대는 단지 양적인 성취 뿐이고 질적 차이가 아직 남아있거나 혹은 성별, 지역별, 계층별 교육 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도 많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20 세기 후반에 급격한 산업화와 교육기회의 팽창을 걸친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정책을 통해 공교육(학교교육)에 평등주의적 경향이 드러났지만 사교육의 팽창으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오히려 더욱 심화된다. 왜냐하면 상층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신보다 계층이 낮은 학생들이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보면 그들과 차별화하는 '방어적 교육투자(Thurow, 1972)' 전략을

택해 질적인 차이를 추구하게 되어 자녀를 보다 유리한 학교에 보내거나 높은 과외비를 지불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동시에 비교적 좋은 대학교에 많이 진학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를 선호하는 현상이 드러나면서 중등교육의 서열화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교육 차별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다시 정리해 보면 공교육은 교육기회의 형평성 확대를 통해 사회 전체적인 부와 소득을 평등화한다고 하는 사회통합기능을 수행하는 역할로 알려져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보편화 시키는 교육 확대가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는 교육에서 수직적 불평등(vertical inequality)을 감소하였다. 하지만 돈이 들어가니 가정형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교육으로 이런 사회통합기능이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교육의 수평적 불평등(horizontal inequality)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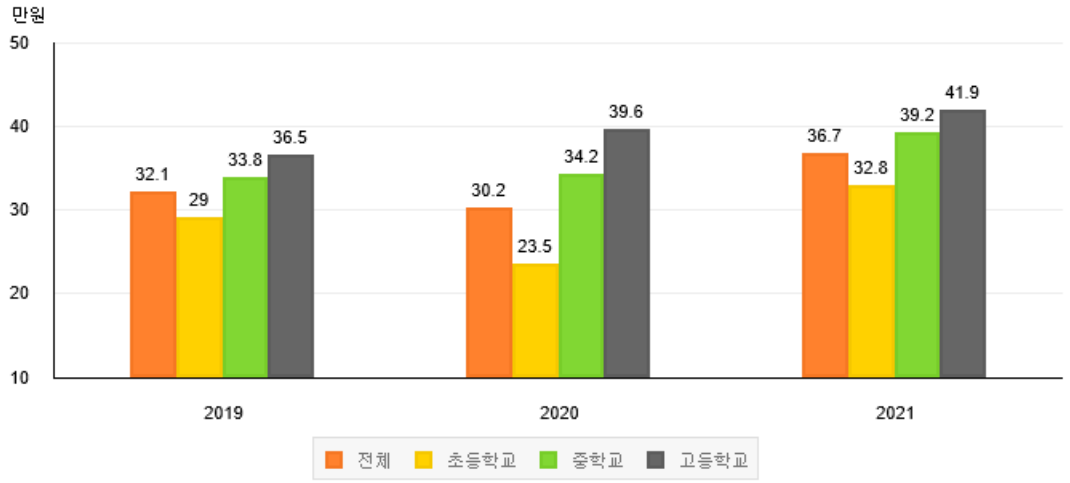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학교 내 보충수업[2], 방과 후 수업[3]등 다양한 제도들이 수립되어 왔지만 이러한 노력과 나라 안팎의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를 거쳐서 경제적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투자에서도 경제적 격차가 두드러진다. 2021 년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1 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코로나

[2] 보충수업은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한 교과 및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정규수업 이외에 별도로 시간과 과목을 정하여 프로그램을 짜고 이를 학교 건물 안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3] 방과후 수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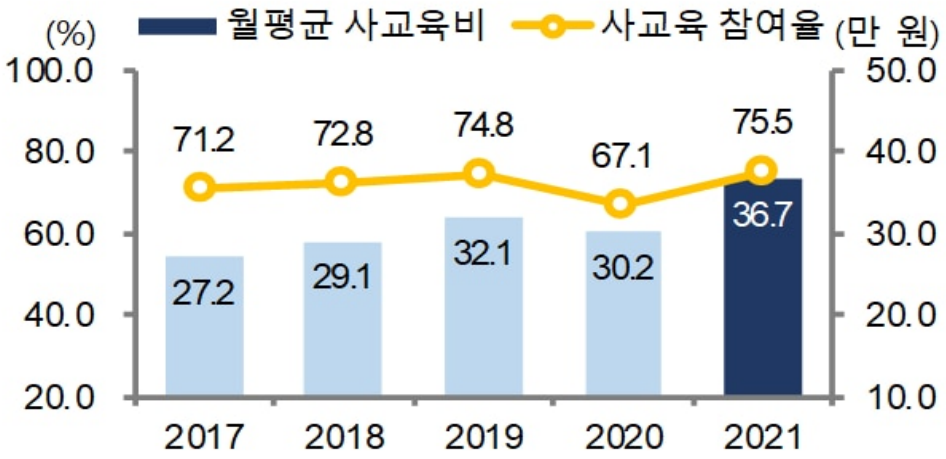
이전으로 회복되는 수준을 뛰어넘는 급증세를 보였다. <그림 1-1>을 보면 2020 년의 30 만 2000 원였던 학생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 비해 지난해는 21.5% 상승하여 36 만 7000 원으로 조사 시행 이래 최고 기록을 차지했고, 사교육비 총액도 마찬가지로 23 조 4000 억원에 도달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사교육 참여율도 역시 75.5%로 2020 년의 67.1%보다 12.5% 오르고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21 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그림 1-1> 전체학생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출처: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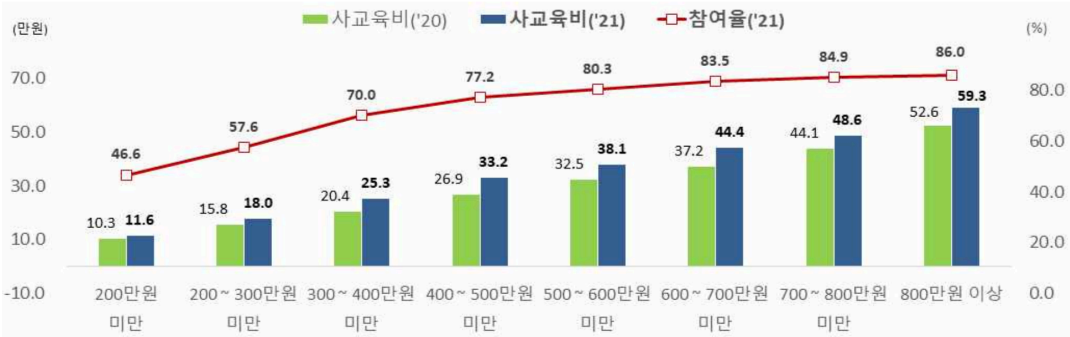
<그림 1-2>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



출처: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상승 추세 이면에는 매우 큰 불평등 문제가 노출되어 있다. <그림 1-3>에 의하여 가구의 소득수준별 보면 자녀 1 인당 월평균 사교육 지출은 200 만원 미만인 가구는 11 만 6000 원, 800 만원 이상인 가구는 59 만 3000 원으로 겨우 5 배의 차이를 보였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200 만원 미만인 가구는 46.6%, 800 만원 이상인 가구는 86.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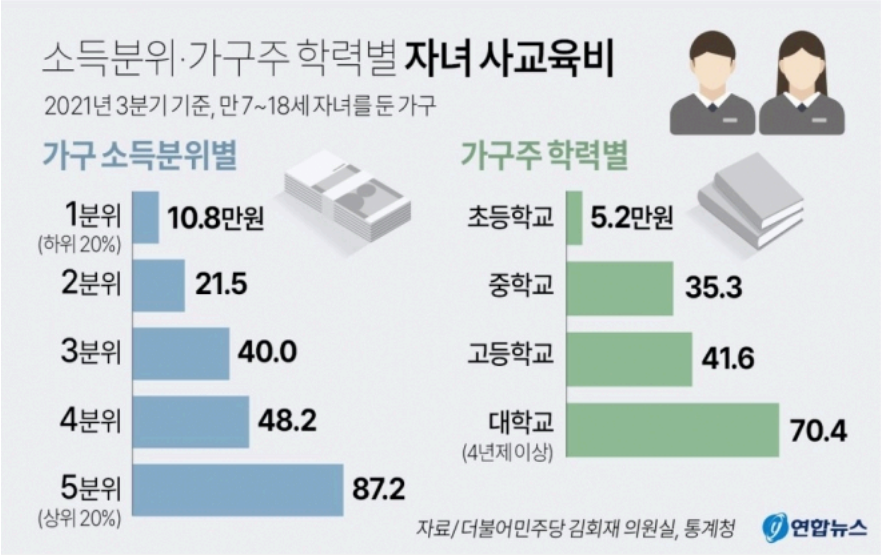
<그림 1-3> 가구 소득수준별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출처: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이러한 가구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통계청의 지난해 3 분기 기준 가계동향조사 데이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만 7~18 세 자녀를 둔 부모의 소득 분위별 평균 사교육비는 소득 상위 20% 87 만 2000 원, 소득 하위 20% 10 만 8000 원으로 약 8 배 차이가 났다. 소득 뿐만 아니라 가구주 학력별 평균 사교육비 지출을 보면 초졸 가구 5 만 2000 원, 중졸 가구 35 만 3000 원, 고졸 가구 41 만 6000 원, 대졸 가구 70 만 4000 원인 것으로 큰 격차를 알 수 있다. 이것은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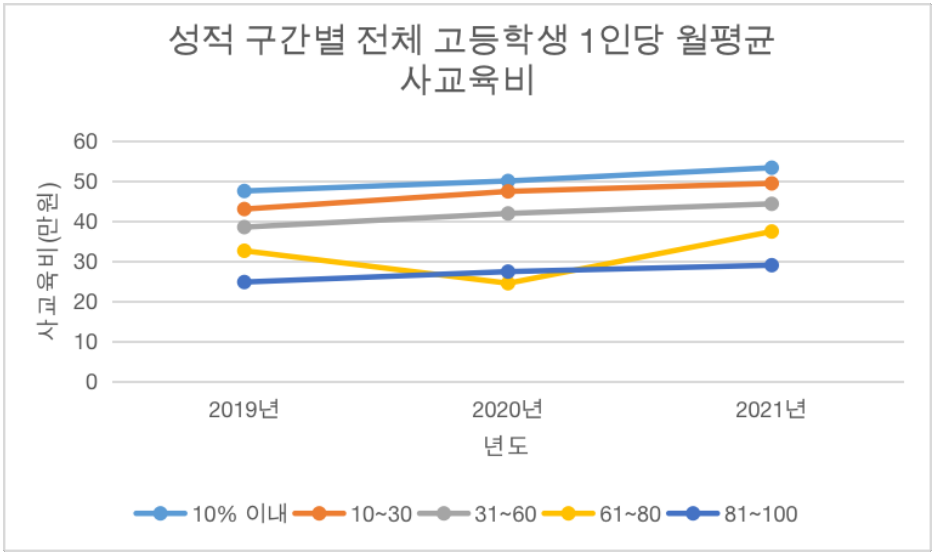
<그림 1-4> 소득분위·가구주 학력별 자녀 사교육비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 통계청

또한 조사를 통해 사교육 정도와 학업성적 사이 매우 끈끈한 관계가 보인다.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2021 년에 학업성취도 상위 10% 이내 고등학생이 사교육에 매달 53 만원 이상을 지출한 반면 하위 81~100%의 학생들은 월 29 만원에 불과해 격차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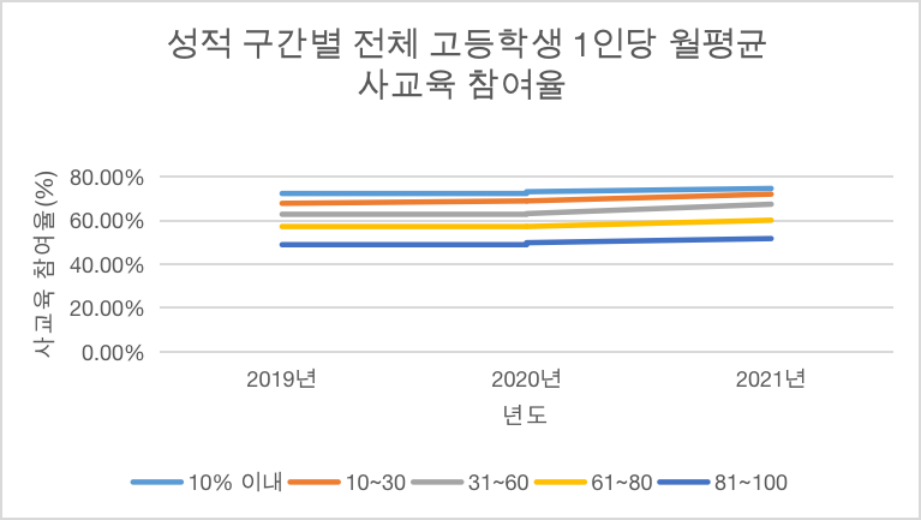
<그림 1-5> 성적 구간별 전체 고등학생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자료: 통계청 2021 년 사교육비 조사

<그림 1-6>에서 보이는 듯이 성적 구간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도 상위 10% 이내가 74.6%로 나타나며 81~100%가 51.7%로 차이가 난다. 이것은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거나 참여도가 높을 수록 성적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6> 학생 성적 구간별 전체학생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자료: 통계청 2021 년 사교육비 조사

이러한 가구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사교육 지출, 그리고 사교육 지출에 따라 차이가 나는 학생의 학업성적을 통해 교육 불평등 하나의 경로가 개시되고 이런 의미에서 교육의 수평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어 있다는 관점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나. 코로나 19 이후 교육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교육불평등이 심해졌다.

2020 년초에 폭발한 코로나 19 의 세계적인 전파는 전 세계 188 개국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므로 많은 나라는 이 사태로 위기에 빠졌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에 의하면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6 억 명을 넘고 사망자 수는 660 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한국 포함된 많은 나라에서 '사회 거리 두기'나 도시봉쇄 같은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많이 제한되어 민간 소비나 기업 투자 및 생산이 감소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활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회의제만큼 코로나 19 에 대응하기 위해 많이 정책 변화를 겪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약 138 개국이 전국적으로 학교를 폐쇄했으며, 또한 여러 국가에서 지역마다 학교 폐쇄 정책을 시행하여 전 세계 약 80%의 어린이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Van Lancker& Parolin, 2020). 학교 폐쇄로 학교교육이 가정형편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에 대한 완충해주는 작용이 줄어들고 가정형편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김위정, 2020) 코로나 19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교육 불평등 문제가 이번 팬데믹때문에 더욱 심화된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일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심각한 소득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1 년 소득 분배율 최하위 40%의 평균 소득은 코로나 19 이전보다 6.7% 낮아졌으며 최상위 40%의 평균 소득은 2.8% 낮아졌다. 즉, 한국 사회에서는 이번 위기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은 고소득층보다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큰 차이는 코로나 초기 영향도 있었지만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위기에서 회복하는 능력이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가구 소득에 따라 학업 성적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에서 코로나 19 로 인한 소득 불평등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한국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개학을 2020 년 2 월 23 일에서 5 월 20 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부, 2020). 그후 전면 등교가 시작되었지만 각 학교 내에 확진자 및 자가격리 발생에 따라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식으로 시행하였다<표 1-2>.

<표 1-2> 코로나 19 와 관련된 교육부의 주요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table>
<tr><th rowspan="2"></th><th colspan="10">2020</th><th colspan="3">2021</th></tr>
<tr><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th>1</th><th>2</th><th>3</th></tr>
<tr><td>유치원
어린이집</td><td colspan="3">휴원</td><td colspan="2">등원-원격
병행,방과후과정(돌봄)
탄력적 운영</td><td colspan="2">휴원 및
원격수업</td><td colspan="2">등원-
원격 병행</td><td colspan="3">휴원,,원격수업</td><td>등원</td></tr>
<tr><td>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td><td colspan="2">개학
연기</td><td>온라인
개학</td><td colspan="4">등교와 원격수업 병행</td><td colspan="2">전면
원격수업
(고 3 제외)
여름방학
(학교장
재량)</td><td colspan="2">등교와
원격수업
병행</td><td>전면
원격
수업</td><td>겨울
방학</td><td colspan="2">봄방학
(학교장재량)
및 원격,등교
병행</td><td>등교</td></tr>
<tr><td>정책지원
(긴급돌봄)</td><td colspan="3">유치원, 유아,
초등학생 긴급돌봄
실시</td><td colspan="10">긴급돌봄 종료. 유치원 긴급돌봄은 돌봄을 포함한 방과 후 과정으로 운영하며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돌봄이 필요한 유아 대상의 방과 후 과정으로 운영</td></tr>
<tr><td>코로나
유행</td><td colspan="2">1 차
대유행</td><td></td><td></td><td></td><td colspan="2">2 차
대유행</td><td></td><td></td><td colspan="2">3 차 대유행</td><td></td><td></td></tr>
</table>

주: 수도권 기준. 지역별 휴원 및 개학 일정이 상이함

자료: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그러나 한국에서 스마트 교육(미디어 교육) 개혁이 시작된 지 오래 되어 다른 나라에 비해 원격수업의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코로나 19 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원격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19 이전 원격교육은 대체로 기관과 개인의 선택이었지만 코로나 19 이후 시행된 원격교육은 국가 교육체계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전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온라인 개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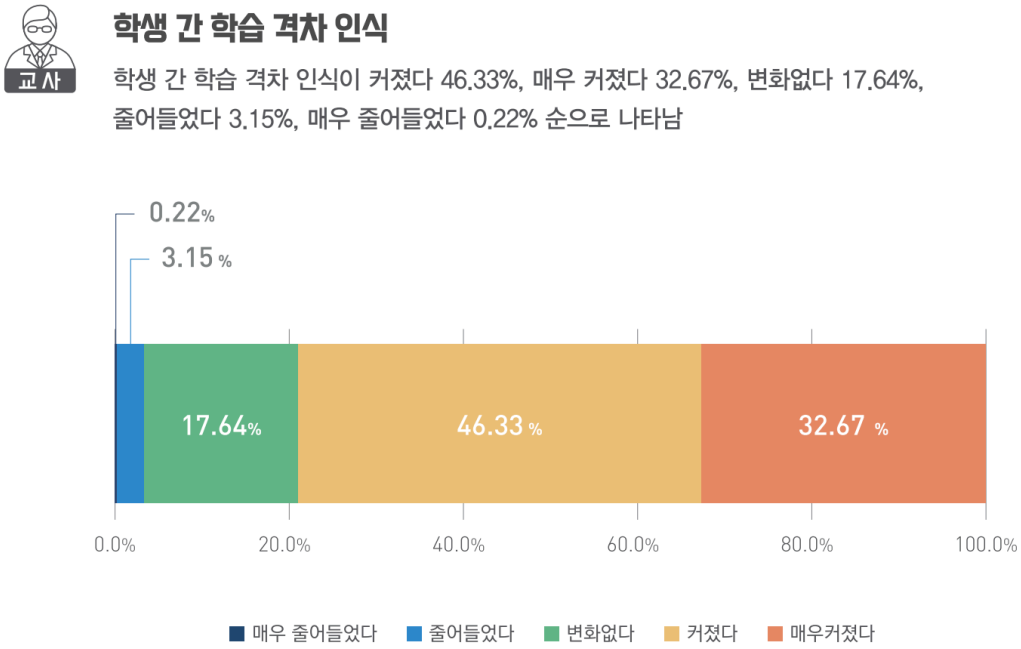
원격수업을 잘 진행시키려고 또는 디지털 격차[4]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등에게 스마트기기 무상 대여, 교육용 사이트에 접속하는 모바일 데이터 무상 지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교육부,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일수가 줄어들고 원격수업이 많아지면서 이에 학습결손이 심해지고 가정형편에 따른 학생간 학습 격차가 커졌다는 인식이 한국사회에서 생겨났다. <그림 1-7>와 <그림 1-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론은 원격교육으로 이한 교육격차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었다. 코로나 19 에 대응해 2020 년 7 월에 교사 51,021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원격교육 경험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교사들의 약 79%는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생간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한다. 이처럼 코로나 19 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는 이미 예견된 동시에 실증되기도 하였다. 수능 모의고사 3 개년도 국영수 점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성적 상하위권이 동시에 늘어나고 중위권이 줄어들면서 양극화 현상이 확인되었다(한겨레, 2020/7/28). 또한 이런 격차는 가정배경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0 년 1 학기에 이루어진 원격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환경은 학교급과 가정경제 상황에 따라 학생의 학습격차를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 있는 학생과 낮은 지위에 있는 학생들 사이의 성적 격차가 확대되어 있으며, 온라인 교육으로 성적 상위권 학생과 성적 하위권 학생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보고하였다(Republic of Korea Case Study, 20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4] 디지털 격차, 또는 정보 격차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 경제적 차이나 사회적 차이가 일어나는 것을 칭하며 digital divide 라는 말은 20 세기 말부터 미국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온라인 수업에서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답하였는데, 이러한 통계치는 코로나 19 로 인한 온라인 수업 체제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 문제를 현실에서 체감하고 있으며, 그것이 더 나아지기보다는 악화될 것이라는 절망적 전망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0).

따라서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전면적 등교수업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19 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교육격차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고 게다가 코로나 19 와 같은 팬데믹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위정, 2020).

<그림 1-7> 교사들이 원격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격차 인식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림 1-8>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리얼미터 의뢰), 전국 만 18 세 미만 1,000 명 대상 설문조사, 5.23.~5.24. 실시

다. 성별 교육 불평등 문제가 아직 심각하다

교육은 역사적으로 볼 때 남성의 전유물이었으며,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도 남성중심적 가정, 가치,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범세계적으로 급속한 여성교육의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남녀간 교육성취도는 여전히 뚜렷한 격차가 있으며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 및 신흥공업국에서 나타내고 있다(김소영, 2018). 따라서 교육적 불평등을 핵심적 주제로 탐구하는 교육학 영역에서 성별 불평등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에 대한 탐색 연구가 매우 많다.

특히 코로나19 폭발한 이후 이로 인한 학교 폐쇄때문에 7억 6천 7백만 명의 소녀들이 포함된 거의 16 억 명의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내보내게 되었다. 성별에 기반한 폭력에서부터 강제 결혼과 조기 임신에 이르기까지, 소녀들은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고조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2 천만 명 이상의 소녀들이 교실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UNESCO,2021). 열악한 환경에서 소녀들에 대한 가정으로부터의 요구는 그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보고된다. 방글라데시,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니제르, 파키스탄, 시에라리온 등 나라에 대해 조사한 바와 같이 소녀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 증가는 가정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온다고 해서 학교 폐쇄 기간 여자 아동노동 현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또한, 성별에 따른 정보 격차는 소녀들의 온라인 학습 능력을 상당히 제한한다고 했으며 15 세에서 19 세 사이의 소녀들은 지난 12 개월 동안 인터넷을 사용한 시간이 소년보다 적었고, 그들 중 휴대전화를 소유한 사람도 소년보다 적었다고 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44%의 소녀는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으나 93%의 소년은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현재까지 수집한 데이터에 의하면 휴교가 끝난 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간 학생에서도 성별 차이를 볼 수 있다. 케냐에서 실시된 연구결과 2021 년 초 개학 후 두 달 동안 15~19 세 여학생의 16%, 남학생의 8%가 재입학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냈고 학비를 낼 수 없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학교 폐쇄는 아이들의 건강, 특히 그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쳤으며 전 세계 15 개 나라에서 소년들보다 소녀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겪었다고 보고했다(UNICEF,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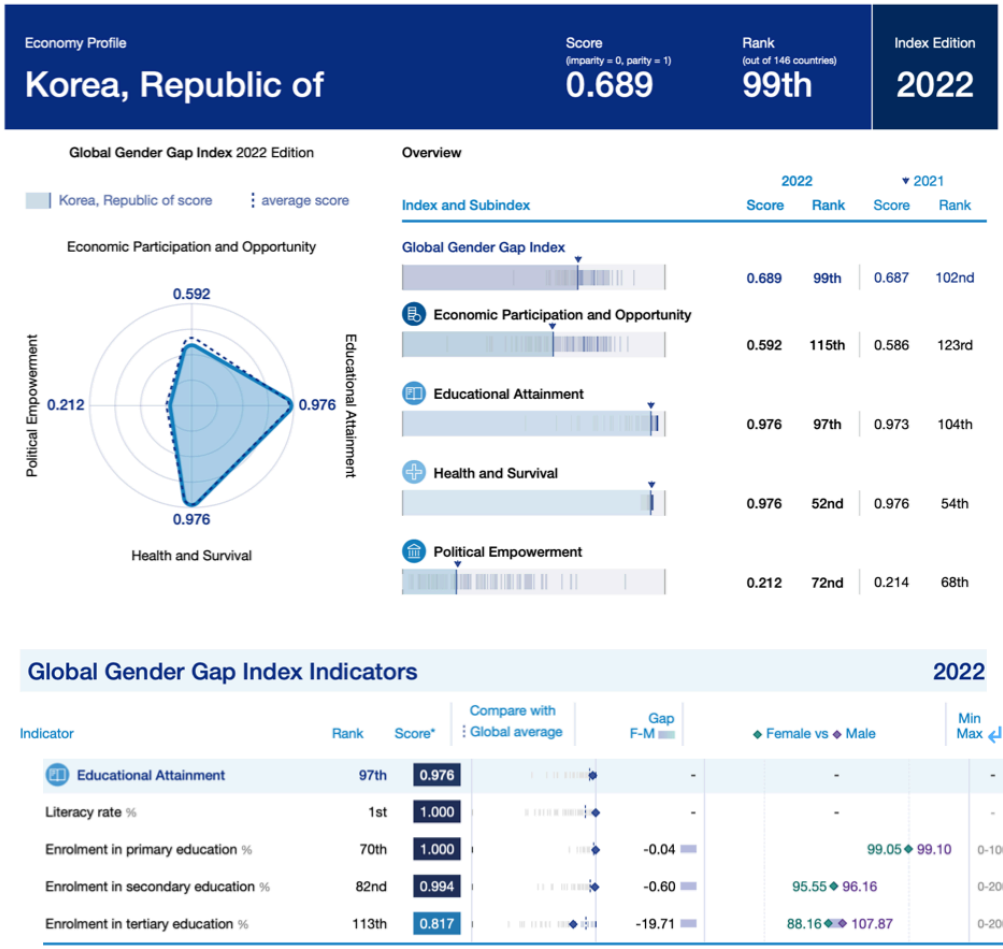
한국에서 학교 폐쇄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성별 격차가 아직 개발도상국에 비해 심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19 확산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여성 고용에 대한 충격이 남성보다 더 크다는 발견이 많이 나타났다. 정부는 남성에게 더 지원했기 때문에 코로나 19 에 따른 노동의 위기는 '여성위주'인데 정부의 회복 방안은 '남성위주'라는 지적이 나온다(매일노동뉴스, 2021/03/08).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이번 위기때문에 성별 격차 문제가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정부의 이런

불평등한 지원은 코로나 19 이후 성별 격차를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코로나 19 로 인한 학교 휴업의 영향이 아니어도 성별에 따른 교육 불평등 현상은 한국에서 원래 심각한 문제다. <그림 1-9>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발표한 세계 성별 격차 지수 순위(Global Gender Gap Report 2022)[5]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46 개국 중 99 위를 차지했으며 최종 점수는 0.689 점으로 작년의 96 위보다 순위이 조금 올라갔지만 작년의 조사 대상국이 올해보다 10 개 많았기 때문에 이건 성별 격차의 큰 개선을 보여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교육 성취도에서, 한국은 97 위를 차지했으며 식자율에서 실질적인 성별 격차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3 차 교육[6] 진학률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19.71% 낮아 113 위에 올라서 교육에서 큰 성별 격차를 나타냈다(UNESCO, 2021). 또한, <그림 1-10>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 2020 년까지 한국의 평균 교육 기간은 12.5 년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교육기간에 성별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남성 교육 기간은 여성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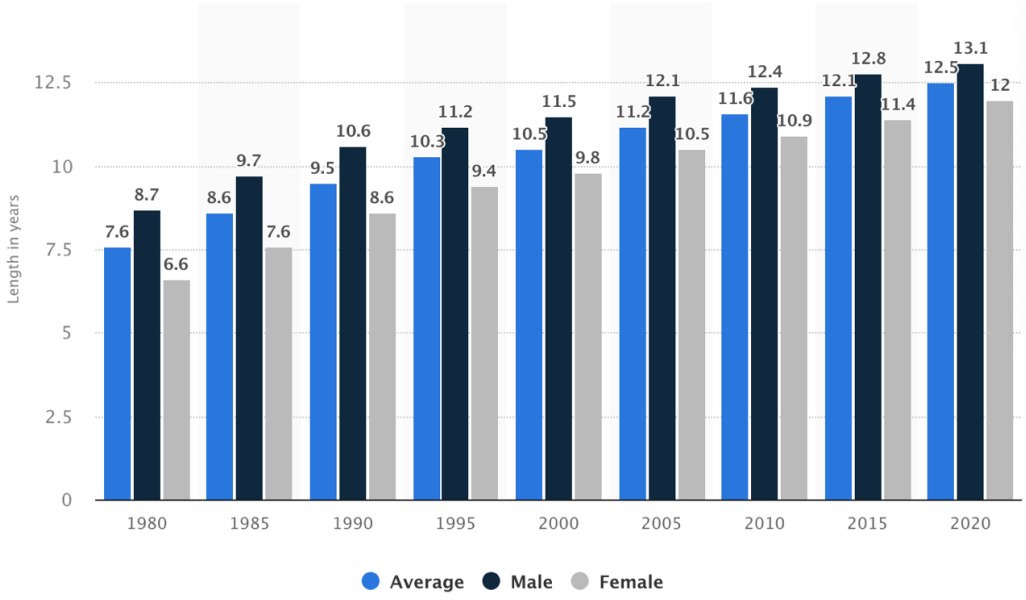
[5] WEF 는 매년 Global Gender Gap Report 에서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부여의 성별 격차 지수를 계산하여 지수가 0 에 가까울수록 더 큰 격차를 보이고 1 에 가까울수록 더 큰 평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각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수준을 반영하기보다는 그 안의 성별 격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6] 3 차 교육(tertiary education) 또는 중등후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은 중등교육 후의 교육이다. 세계 은행은 대학뿐만 아니라 직업 학교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는 고등 교육을 정의한다.

<그림 1-9> Global Gender Gap Report 2022: Report of Korea



<그림 1-10> Average length of education in South Korea from 1980 to 2020, by gender(in years)



출처: L. Yoon, 2021

1.2 연구목적 및 연구 필요성

이러한 역사와 현실적인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시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학업성취 격차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학업성취에 영향요인을 측정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서 성차를 규명하면서 교육 불평등의 경로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재현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고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를 줄일 수 있게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다.

일단 교육은 좋은 직업이나 고소득 등 이른바 사회적인 성공을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교육 성취는 개인의 선천적 자질과 후천적 노력뿐만 아니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의 소득, 부모의 학력과 직업 등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회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수단인 동시에 교육은 부모와 자녀간의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또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작동된다(장상수, 2000).

서로 다른 직업이나 소득을 가진 계층에 따라 나타난 기회의 불평등, 즉 교육 수준의 차이, 그리고 교육 수준의 차이때문에 빚어진 결과의 불평등, 즉 직업이나 소득의 불평등은 이미 악순환을 이루면서 사회적 평등, 이른바 능력주의사회(meritocracy)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이러한 불평등의 정도와 그의 변화, 그리고 그것의 원인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지금까지 사회과학영역에서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교육 불평등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20 세기 고등교육의 팽창으로 가정환경이 교육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졌는지, 개인의 교육성취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보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한 분석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료나 분석방법에 따라 결론에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답을 못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에 따른 대입 불평등은 시기나 출생 코호트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힌다[7]는 결과가 나오는 반면 사회이동이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오히려 격차 증가했음을 보여 준다는 연구도 있다(Chung, I., & Park, H. (2019). 또한 출신이 개인의 최종수학연수에 미친 영향은 점차 감소했지만 각급학교로의 이행에 있어 가족 배경의 영향력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종종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결론이 아직 없을 만큼 새로운 발견은 방법론의 발전이나 자료의 보완 등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보다 최근의 데이터를 활용해 이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정치외교·문화교류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어 격차가 커지고 있다. 교육 측면에서 보면, 한편으로 코로나 19 펜대믹 사태로 인해 많은 학교들은 문을 닫고 학교 교육이 원격수업에 크게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집에 인터넷이 없거나

[7] 최성수·이수빈, 「한국에서 교육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최종학 력 격차의 출생 코호트 추세」, 『한국사회학』 52 권 4 호, 2018.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먹을 것과 주거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교육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게 되고 심지어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휴교 정책은 가정형편에 따라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조차 불평등하다는 것을 보면 이번 팬데믹에서 교육 장벽이 악화되고 교육 격차가 계속 커질 거라는 예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보면 원격수업을 하나의 변수로 설정하여 코로나 시대에서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친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면, 비대면 수업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다소 이루어져 있으나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까지 같이 연구한 것은 한국에서 아직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고,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미디어 활용까지 이용해야 하는 학습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변화 요소 대두로 인해 가정배경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김은지, 정구철, 2022; 박인선 외, 2021; 임혜정, 2016). 다른 한편으로 현재 한국에서는 코로나 19 로 인해 교육의 성별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지적이 많이 없지만 돌봄·고용 등 영역에서 성별 격차 확대 문제가 교육 측면으로 파급될 것이 예견될 수 있고 게다가 한국은 가뜩이나 학업성취도와 중등후 교육에 진학에서 성별 격차가 나타났기 때문에 코로나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만큼 그때 어떻게 대비하면 더 효율적인지, 특히 교육 측면에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교육 격차의 확대를 예방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 시대 한국에서 학생 학업성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들은 어떻게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영향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결과에서 반영되는 교육 불평등의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1.3 연구의 구성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교육 불평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원격수업, 학업성취 등 개념과 이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을 개관하고, 또한 이에 근거한 경험적 연구 성과들을 살펴본다. 3 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연구 자료, 변수 선정, 연구 모형과 가설, 그리고 연구 설계에 대한 개관한다. 4 장에서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이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자녀의 관계, 원격교육과 사교육 상황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영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경험적으로 검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앞에서 발견된 사실들을 요약하고, 나타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 것들이 가지는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핵심 개념 설명

가. 교육 불평등

교육 불평등이란 교육의 기회와 질이 사회계층이나 집단에 따라 다르게

또는 편향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하위계층이나 소수자 집단을 배경으로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이나 계층에 비해 낮은 교육적 성취를 드러내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교육 불평등은 교육기회의 불평등, 교육과정의 불평등 그리고 교육결과의 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불평등 현상에는 사회계층, 가정 배경, 본인의 능력, 또는 교육제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교육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대표적인 현상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또한 많은 사람은 결과의 격차보다는 출발점과 과정의 불평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뜻하기도 하고, 과정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 불평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교육기회의 불평등(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IEO)을 가리키며 교육기회의 평등은 개개인의 학력 성취가 가족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해 제약 당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배분 되는 정도라고 정이된다(Boudon, 1973; 김영모, 1982).

또한, 교육 격차, 교육 양극화, 학력 격차 등 유사 개념들이 교육 불평등과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개념들을 구분하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교육 불평등은 교육에 대한 이념적, 사상적, 상징적 관점에서 주안점을 두고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고 정의를 내는 반면 교육 격차는 차이를 강조하는 듯이 교육 불평등보다 좀 더 현상적이고 가시적인 성격이 강하다(장상수, 2000). 교육 양극화는 개체 수준과 전체 평균의 차이를 바라보는 교육 불평등의 시각과 달리 집단 간 차이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중간층이 사라지고 대신에 양 극단이 확대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이다(손준종, 2006). 학력격차는 이 중 '교육 결과'에 집중한 개념으로 '학업성취도 격차'와 유사용어로 활용되며, 집단 간 상대적인 교육 결과의 차이를

뜻해서(Editorial Projects in Education Research Center, 2011) 교육 불평등이 기회, 과정 그리고 결과가 다 포함된다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성격이 있다.

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는 계층체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혼합한 지위로 정의될 수 있다(Baker, 2014). 사회적 지위는 주로 직업, 교육수준 등에 의해 평가되고 경제적 지위는 주로 경제적 력, 즉 소득이나 재산 등에 의해 평가된다. 물론 최근에는 가구마다 가지고 있는 부, 권력, 사회관계 등 이미 많이 연구된 객관적인 자원 외에 건강 상태, 언어능력, 타인에 대한 영향력, 심지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가하는 새로운 요인들도 개발되어 왔다(Adler et al 1994; Seeman and Crimmins 2001; Anderson and Brion 2014). 예를 들면 집에 있는 도서 수를 가정의 사회경제적의 지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특히 언어 성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된 연구가 많이 있다(Burgess et al., 2002; Eriksson et al., 2021; Grolig et al., 2019; Gustafsson et al., 2011). 또한 연구 대상들이 소득 얘기 하기 싫어할 수도 있어서 '소비'와 '지출'이 소득보다 더 객관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Davidson R al., 2007), 연구 대상이 처하는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 현황과 사유지(경작지) 면적, 납세상황과 자가용차 수, 카스트(caste)와 가구 유형(family type) 등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표현하기도 한다(Tiwari et al., 2005; Daly MC et al., 2002; Pareekh et al., 1981).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연구는 종종 특권, 권력 및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자원 접근의 불평등 문제를 많이 드러내다. 교육 불평등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자들이 보통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여 이를 학생이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지원 및 지원 정도를 결정하는 학업성취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반복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다. 원격수업

1) 원격수업 개념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거리와 학습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수자의 주도로 모바일 PC 등을 통한 비대면 교육을 수행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원격수업이란 더 구체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이며 이를 공간적 특성과 시간적 특성에 따라 동시적 원격수업과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육부는 여기에 더해 실시간 화상 교육과 같은 동시적 원격수업도 원격수업의 개념에 포하시킨다(교육부, ‘2020 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2020/3/27).

2) 원격수업 여건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첫째, 수업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가 매체를 통해 학생에게 전달할 교수·학습 자료가 필요하다. 셋째, 가정에서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원격수업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교육 플랫폼의 개발, 교육용 콘텐츠의 제작과 학생에게 전달하기에 필요한 시스템은 정부의 학교에 대한 지원과 학교 교사가 받는

교육 및 훈련 등에 많이 달려 있으며, 학습환경이나 원격수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학생의 가정형편과 학부모에 크게 의지한다. 왜냐하면 느리거나 자주 끊기지 않은 인터넷,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핸드폰이나 pc 등 전자기기 그리고 조용하고 독립된 학습공간과 같은 가정 내에서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려면 학생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는 학생이 원격수업에 참여하기에 적절한지를 교사와 부모의 점검이 필요하여 부족할 경우 있으면 부모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라. 학업성취

학업성취 또는 교육 성취는 광의와 협의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광의적으로 볼 때는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학습결과를 포괄한 개념이며, 협의의 관점은 학습에 의해서 얻어진 교육적 효과로서 학교 교과에서 얻은 점수 혹은 구체적 수단에 의해 측정된 것을 의미한다(김이경 외, 2018). 주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TIMSS(the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ICILS(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가 있으며 참여 회원국은 국제 수준의 학교 교육 성과와 성취도 변화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본국 교육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 및 적절한 교육정책 수립에 나선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학업성취변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크게 2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첫째는 학교내에서 각종 학교 내신 관련 평가 자료, 둘째는 표준화된 시험성적으로 국가수준의 성취도평가, 대학수학등력시험,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모의고사 등이다(우원재·김현진, 2017). 물론

한편으로 객관적인 측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로 협의의 관점에서 학업성취에 접근되고 있으며 교육년수, 상급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여부, 학업성적 등이 분석대상으로 활용되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분석자료에 따라 학업성취에는 정량화된 학교와 교사의 평가, 심지어 교과의 성취도에 대한 학습자 본인의 주관적 평가와 같은 주관적인 척도로 학업성취를 측정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있다(박지우·임규연, 2021). 예컨대 연구자가 학습과정, 학업내용, 학업수행, 과제수행, 학업평가의 전체적인 성취도에 대한 자기평가로 학업성취를 측정한 적도 있고(허균, 2009),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자신감으로 학생의 정의적 학업성취를 설명한 연구도 있다(김현진, 2007).

본 연구는 13 세~18 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 1 부터 고 3 까지 학년별로 분포되어 있어 상급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여부라는 지표로 측정할 수 없다. 또한 자유학기제[8]때문에 한국에서는 중2부터 시험치기 시작해서 시험 성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그다지 적합하지 않고 서로 다른 시험의 성적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공정하게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를 지표로 분석하자고 한다.

2.2 학업성취에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 검토

학업성취는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Broadbent & Poon, 2015; 허균, 2009),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영향하는 요인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가, 사회, 가정, 학교 그리고 개인까지

[8] 자유학기제
https://namu.wiki/w/%EC%9E%90%EC%9C%A0%ED%95%99%EA%B8%B0%EC%A0%9C

다섯 차원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그 중 국가 체제, 해당 사회의 교육 제도, 학생 선발 방식, 심지어 산업화 구조와 같은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요인은 보통 국가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 보거나 한 사회 내부에서 시계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연구할 때 많이 사용된다. 개개인의 학업성취의 영향요인을 연구할 때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난다.

일단 가정 차원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표적인 요인으로 사용된다. 특히 Coleman 의 연구 발표 이후 가정 요인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널리 연구되고 있으며,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Bowles, 1977; Coleman et al., 1966; Lverson& Walberg, 1982; Jencks et al., 1972)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학력 등의 지표로 측정되는데,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위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Bowles, 1977; Brooks-Gumm& Duncan, 1997; Jencks et al., 1972; Mayer, 1997; Yeung et al., 2002). 그와는 별도로 형제자매의 수, 또는 출생순위 등과 같은 가족구조, 부모의 양육 방식, 부모가 자녀 교육에 지지와 기대와 같은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 심지어는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한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의 교육환경과 학교풍토, 교사의 수업방식과 교육의 질(강상진 외, 2005) 그리고 학교나 교사의 계급적 편향 등 학업성취에 영향요인으로 자주 연구된다. 개인 차원에서는 일단 학습 방법과 학습 능력, 공부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과 같은 객관적인 요인이 있고 학습 태도와 공부에 대한 흥미와 열정 등 심리적 요인도 학업성취에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1)가정의 경제적 수준, (2)부모-자녀의 관계, (3)사교육, 그리고 (4)학교 교육을 독립변수로 선정되어 있으니 다음에서 각 변수들이 학업성취에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도록 한다.

가. 가정 배경

그동안 가족 배경은 학업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내외 연구에서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한 연구자는 미국 초중고교 학생과 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가정배경, 학교, 교사들을 변수로 설정하여 그들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정배경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결론을 내렸다(Coleman et al. 1966). 또한 다른 다양한 연구에서도 학업 성취가 주로 가정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Crane, 2001; Hauser & Featherman, 1976; Jencks et al., 1972; Jencks & Brown, 1975; Ma & Klinger, 2000). 한국에서는 부모의 사회계층, 교육 수준, 직업, 가정의 문화 수준 및 부모의 월 소득 수준 등 가정배경적 구성요인이 모두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며,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고 하였다(강경일, 1980). 또한 부모가 형성하는 가정환경은 자녀의 인지적 성취 뿐 아니라 정(情)의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김현진, 2007).

가정 배경은 주로 지위환경, 과정환경, 구조환경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거나 가족의 경제적 수준, 사회적 지위, 문화적 자본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 볼 수도 있다.

1) 경제적 수준- 소득

그중 특히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 교육은 직접비용이든 기회비용이든 간에 사적인 비용을 수반하고 그 비용은 대부분 가족으로 얻는 것이 보통이어서 가족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의 학력 성취에 제약을 가하리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장상수, 2000). 그러다가 가족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 부모의 소득은 계량화하기 쉬운 수치로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그만큼 설득력이 강한 편이다. 그 동안 가구 소득이 학업성취에 영향과 관련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이 둘 사이의 강한 연관성은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미국 연구자는 학생의 시험 점수 및 교육 수준 두 가지 차원에서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35 개 세계 주요 고소득 나라의 PISA 데이터[9]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 가정의 자녀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이가 학생들의 교육 수준까지 확대되어 고소득 가정의 자녀는 고등 교육 과정에 진학할 가능성이 더 높고 동일한 고등 교육을 받더라도 고소득 가정의 자녀는 학교를 마치고 학위를 취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Jo Blanden Matthias, 2022). 이처럼 학업성취에 있어서 부모의 소득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 기지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컨대 부모의 교육 방식은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9] PISA 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만 15 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각국의 학업성취도를 비교 평가하는 시험이다. 영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라고 약칭하며, '학업성취도 국제비교'라고도 한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는 자녀를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요하기까지 하곤 한다. 민주적이고 올바른 양육 방식을 받아 성장하는 아이가 보다 좋은 학업성적을 얻게 되고 나중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못한 아이는 인간관계에 불안감이 심하고 충동이나 분노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나타났다(Doepke, Sorrenti& Zilibotti, 2019). 또한, 가족과정론자들을 통해 가난한 가정의 부모들은 종종 재정 압박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지역사회로부터 유리되거나 소외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은 부모의 심리적 적응과 자녀 양육 방식에 부정적 영향을 마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McLyod, 1989; Conger et al., 1992). 즉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의 부모들은 애정적이고 친밀한 행동보다 징벌적인 식으로 자녀를 교육하게 함으로써 자녀 성장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정리하자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구조, 특히 경제상황이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주고, 그들의 교육방식에 차이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영어 학습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부모의 경제수준을 논하고 부모의 경제수준이 자녀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쳐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Shin 2001; Yang& Sung, 2006; Phang, 2004).

앞에 개념 설명 부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소득 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매우 많고 대표적으로는 가구의 자가용차 수, 주거환경, 납세 현황, 소비와 지출 심지어 학생의 한달 용돈 등 있다. 그 중 주거환경과 학업성취의 상관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연구 내용에 따라 주거환경의 정의가 달라지고 또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른 변수가 추가되어 분석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연구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주거환경이 주택 내의 설비, 주택의 규모, 편익시설, 거주 상태 그리고 주거 내의 교육적 분위기를 포함시켜

주거환경지표로 사용되어 주거환경 변수는 중학생의 학업성적에 독립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가 있고(신경주·노선덕, 1990), 시설기준, 면적기준 그리고 구조·성능·환경기준 등 하위 변수를 통해 주거환경을 평가하여 빈곤한 주거환경 중 시설기준과 면적기준이 아동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도 있다(김광혁·신다은, 2012). 또한 여러 차원으로 주거환경을 측정하지 않고 한 가지 지표만 골라서 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집에서 공부방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학업성취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이정선, 1996). 그리고 주거환경 여건 자체에 벗어나서 일정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시간, 심지어 같은 동네에는 살고 있는 이웃의 영향까지 고려해서 주거환경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연구자가 불안정적인 주거환경인 영구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아동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은 개인, 가족 수준의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김희윤·백학영, 2010). 또한 이웃 효과(neighborhood effect)[10] 라는 개념이 있는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생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되어 질이 다른 학교 교육을 받고 수준이 다른 이웃들과 사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 좋은 동네에는 살고 질 높은 학교 교육을 받고 비슷한 배경을 가진 또래와 사귀는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 사이 교육 기회의 격차가 이미 생겼고 결국에 결과의 격차, 즉 학업성취의 차이로 나타난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된 시기에 이런 거주지 사이의 교육 불평등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고 한다(Nechyba, 2006).

[10] 이웃 효과: 이웃이 개인의 행동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경제 및 사회 과학 개념.

2) 사회적 지위- 직업

그 다음에 직업이 좋을 수록 소득이나 고용의 안정성이 더 좋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가구의 소득을 창출하는 부모의 직업도 따라서 중요한 연구 지표가 된다. 또한, 사회학자들은 직업으로 사회 계급을 나누는 역사가 오래 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가정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직업이 좋아 소득이 높은 부모일 수록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자본[11]이 많아서 이를 통해서 자녀의 성공기회를 높이곤 한다. 그래서 직업과 사회자본을 연계시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자가 많다. 그들에 의하면 교육은 직업 구조의 상층부를 점유하고 있는 집단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층계급을 배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좋은 직업을 가진 소위 말하는 지배 계급은 교육이 이러한 특권을 재생산하는 데에 기능할 것을 당연히 요구한다. 그러므로 학교는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와 교과과정의 운영에서 지배계급의 가치를 지향하고, 따라서 이와는 다른 가치를 지닌 하층 계급의 자녀들은 언제나 불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밖에 없어서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계급 층별로 다르게 분포되는데 영향을 끼친다[12] (Bowles and Gintis, 1976; Bourdieu and Passeron, 1977; Bourdieu, 1984). 이처럼 아동의 성장에 유용한 사회적 연결망일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은 학부모의 학교와 가정 참여로 정의되기도 하며 구체적으로 가족간 의사소통, 자녀의 학습활동 함께하기, 자녀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포함되어 자녀의 학업성공에 중요하다고 보고 하였다(Braatz& Putnam,

---

[11] 콜맨(Coleman, 1988)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구조 속에 존재하여 특정행위를 촉진하는 연결망이다.

[12] Boudon(1974)의 표현을 따르면, 이는 계급의 '일차적 효과(primary effect)' 라고 할 수 있다.

1996).

또한 의약, 경영, 법학 등의 분야 종사자 중 자녀가 부모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으며(Jo Blanden Matthias, 2022), 이 현상을 통해 중상위계층의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으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높은 열망이나 부모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학습동력이 되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노동자 계급과 하층 계급의 자녀들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규범, 그리고 취향에 따라 학업 열망에서도 자발적 위축(self-elimination)(Lamont and Lareau, 1998)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부모의 학력과 월소득이 높거나 직업이 좋으면 자녀에게 역할모델(role model)을 제공하여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인다는 결과(오혜진, 2011)에 의해서, 하층 계급의 자녀들은 학업 측면에서 따라하는 역할모델이 부족해서 계급 간에 학력 성취의 차이도 점차 커지게 된 것이다.

3)문화적 자본- 학력

그러나 가족의 경제적 능력만이 학력 성취에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 교육이나 학자금, 그리고 각종 장학금 제도는 많이 존재하는 오늘날은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경제적 능력보다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적 자본이나 지원, 부모의 교육 기대 등 문화적 요인을 더 강조하고 이는 학업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연구된 문화적 지표가 부모의 교육수준이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사회적 지위와 힘을 부여하는 축적된 문화적 지식도 많은 편이어서 자녀 교육 과정에서 좀더 많은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론이 이미 많이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아버지의 교육년수가 많으면 자녀들의 수능성적이 높음을 발견했거나(장미혜, 2002), 여학생에게서 어머니의 학력과 좋은

성적의 정(+)적 상관을 발견하기도 하였다(김현주·이병훈, 2006). 또한 부의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수능 서열분포성의 상위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음을 발견했다는 연구도 있다(방하남·김기헌, 2002).

물론 이처럼 부모의 교육수준이 독립변수로 직접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연구가 많지만 그런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는 연구결과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 교육에 시간적 투자가 다르며 따라서 학업성취를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가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보다 자녀 교육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대학 교육을 받은 부모들이 매주 세 시간 이상을 자녀들과 교류하며 보낸다고 한다(Ramey, 2010).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일 수록 책을 많이 읽는 경향이 있어 도서관에 아이를 데려가고 아이가 학교에서 얻은 지식들을 일상의 다양한 삶과 연결시켜 어떠한 구체적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해줄 수 있는 탄탄한 문화 자본을 가진 부모와 같이 사는 아이들의 학습능력도 강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의 이러한 멋진 모습을 보면 따라가려는 자녀들은 학습의 동기를 부여 받았다(De Graaf,1986; Bernard Lahire, 2019). 능력의 유전적 요인도 학업성취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서 아이를 낳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한다. 이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의 수익률(returns to education)을 높이려고 교육수준을 가진 배우자를 찾는데 동기부여를 하게 되어 미국에서 대졸자들끼리 이제 서로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현상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학업성취의 관계가 능력의 유전적 요인에 의해 매개되어 있음을 확증될 수 었다(Mare, 2016; Lundberg, Pollak& Stearns, 2016).

교육수준 이외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취양과 인지적 능력 형태의 문화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기도 하였다(장미혜, 2002). 더 무서운 것은 어떤 가정에서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녀의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을 챙겨주기 위해 부모가 돈을 열심히 버는 동시에 이렇게 다양한 취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이미 다른 가정에서 부모가 누려온 삶의 방식으로 아이들도 함께 공기처럼 누려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으로 문화적 지원을 받고 학업 열망도 높은 학생들은 보다 좋은 학업성적을 얻게 되고, 따라서 학력 성취도 높은 편이다.

나.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기 전에 양친가족 이외의 소년소녀가족(parentless family), 한부모가족(single-parent family), 계부모가족(step-parents family), 양자가족(adopted family) 등 가족에서는 사회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서 학생들이 이때문에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족구조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가족구조의 영향이 중요한데 그중 하나는 바로 가족 간의 관계라고 한다(이재훈·김경근, 2007). 이번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대부분이 양친가정에서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서 부모-자녀 관계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부모-자녀 관계와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은 주로 부모의 지지, 부모가 자녀에 관심정도 등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결과들(Leung et al., 1998; Steinberg et al., 1992)로 논의되어 왔다. 부모의 지지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입증되었다(백은경, 이응택,이은경, 2018; 최수미, 이동혁 2017; Liewet al., 2014). 부모가 자녀에 관심정도에 대해서 연구자가 자녀의 학교생활, 친구와 사귀는 상황 등 6 가지 질문에 '전혀 모르다'에서부터 '매우 잘 알고 있다'까지 5 점 척도로 응답을 받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자녀에 관심정도가 자녀의 학업성취 간에 교급별이든 성별이든 모두 상관관계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한다(김현주·이병훈, 2007).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시간 및 대화정도를 통해 부모가 교육에 대한 관심정도를 측정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분석하기도 한다(김경근, 2007). 대화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과 관련되어서 이에 부모가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아이의 학습 동향을 제때에 알 수 있고 학생이 안 좋은 성적을 받거나 학교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다(McNeal, 1999). 적극적인 대화 이외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우호적이고 애정어린 양육 태도를 보일 때는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지만 부모가 거부감, 무관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다(박영신·김의철, 2000; 정갑숙, 2002). Teachman et al., (1997)은 학업 성적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의 관계가 학생의 학업중단 상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양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자녀가 중퇴율이 낮고 부모자녀의 유대가 강할 수록 자녀의 중퇴율이 낮다. 한편, 부모자녀의 관계와 같은 사회 자본이 성취동기를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문주희·백지숙, 2012). 예컨대 아동의 학업성취는 자아존중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김경연, 1985; 김희화, 1998) , 자아존중감은 또는 가족체계와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영향을 받는다(Rosenberg, 1979; 오윤선, 2008)는 점에서 부모-자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업성취간의 인과적 경로가 검증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부모의 지지 및 관여 수준이 높을 때, 부모-자녀 간 유대감이 증가할 수 있어서 학생의 사회적 위축, 우울이 낮은 반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음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친다(연은모·최효식, 2019). 또 한편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역할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손진회·김안국, 2005)도 있다.

이렇듯 부모-자녀의 관계와 학업성취간의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많이 논증되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부모의 학력이 아무리 높고 경제력이 좋아도 자녀의 교육 성취 향상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김경근, 2000). 즉 단순히 부모의 높은 수입과 교육수준에 의하여 자녀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김은정,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대화 시간이 포함) 과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 두 가지 척도로 측정된 부모-자녀의 관계까지 하나의 독립변수 설정하였다.

다. 사교육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사교육 변수가 포함되었다. 사교육의 팽창 원인 중 하나는 학부모들이 사교육이 학교교육이 본인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정유경, 2010). 그래서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는 사교육은 항상 학업성취와 연계시켜 연구되었으며 주로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영향 효과가 어땠는지와 관련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여, 부모의 소득이

사교육의 매개체 역할을 통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 하거나(구인희, 2003; 김태균·권일남, 2009; 박창남· 도종수, 2005; Conger et al., 1992; Klebanov et al., 1994), 부모의 거주지역, 학력과 소득 등 사회계층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사교육에 의해 자녀의 학업성취를 영향을 미친다 하거나(장정희, 2002; 김진남, 2005), 사교육 경험이 많을 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김현진, 2007; 상경아·백순근, 2005; 박현정 외, 2008), 사교육이 성적 향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김은정, 2007; 양정호, 2007; 이명헌·김진영, 2005)이 있는 반면, 사교육이 학업성취도 증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연구(반상진 외, 2005), 사교육을 받는 여부, 사교육의 유형, 사교육을 받은 시간이 영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되었다는 연구도 있다(박은숙, 장진태, 2012). 사교육이 선행학습과 반복훈련으로 특징짓는 학습방식은 오히려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이 내포하고 있거나(정윤경, 2010), 높은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시간의 증가는 학생들이 시험성적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상실하여 학습의 흥미를 잃고, 창의적 인재의 육성을 제약한다는 연구도 있다(김진영, 2007). 심지어 사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사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의 성취가 오히려 더 높다는 결과까지 나왔다(우천식 외, 2004). 이는 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한 조사방법, 대상, 시기 또는 자료를 분석할 때의 변수설정 및 모형설계 등에 따라 상이한 연구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겠지만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적절한 데이터와 방법론을 활용한 실증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사교육비 지출 규모, 사교육

참여도(시간), 사교육 형태 등을 통해 사교육 변수를 측정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독립변수로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는 연구(이수정·임현정, 2009)가 있는 동시에 매개변수로 가구소득에 영향을 받으면서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밝혔다는 연구(우원재·김현진, 2017)가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직업과 소득이 사교육을 매개로 자녀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정영애·김정미, 2002; 김현주·이병훈, 2007). 또한 사교육 형태에 대해 일단 한국사회에서 학부모의 사회계층과 상관없이 과외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능률적인 면을 중시하여 개인과외를 선호하고,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학원과외와 같은 비용이 저렴한 과외형태를 선호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란다(김정옥, 1994).

라. 코로나 19 이후 학업성취 관련 연구

2019 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대유행은 전 세계에서 대부분 나라가 지탱하고 있었던 많은 구조적 체계를 변화시키거나 문제를 발생시켰다. 교육영역에서는 특히 학교의 대면수업이 재택에서의 동영상 또는 실시간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각 학생의 부모 소득 및 교육환경의 차이는 학생들 사이의 '교육 불평등'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대에 코로나 19 만큼 세계적으로 여러 면에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국제비상사태가 드물기에 이번 위기로 인한 교육적 영향과 영향 발생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해야 하는 선행 연구 검토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해당 연구 검토하기 앞서 먼저 학교교육의 결함에 관한 선행 연구부터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런 연구들에 의해 학교

교육의 결함의 원인을 주로 여름 방학, 날씨 또는 자연 재해로 인한 학교 폐쇄(예: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및 결석으로 나누어 있다. “여름방학 학습 손실”(summer learning loss, summer slide, summer setback)과 여름 캠프(summer camps)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미국에서 긴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은 학기 중에 얻은 성취의 25% 정도를 잃어버린다고 한고(Dave Marcott, 2007).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데다가 인종이나 가정배경에 따라 차이가 확대된다는 것을 밝혔으며(Entwisle, D. R., & Alexander, K. L.,1992) 여름방학이 지나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읽기에서 중·고소득 학생들에게 뒤처진다고 한다(Cooper H. et al, 1996). 날씨 또는 자연 재해로 인한 학교 폐쇄는 예기치 않는 점에서 코로나 19 와 비슷해서 그의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폭설로 인한 장기휴교 시 3,5,8 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학교가 하루 문을 닫을 때마다 읽기와 수학에서 기대 성적에 못 미치는 아이들이 약 0.57%씩 늘어났다고 한다(Dave Marcott, 2007). 이와 비슷하게, Hansen (2011)에 의하면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폭설로 인한 휴학 기간 동안 8 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가 평균 1.3% 떨어졌으며 메릴랜드 주에서도 역시 같은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교육이 중단된 기간이 무척 짧다고 하더라고 그 영향은 지속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 로 이한 휴교나 등교 연기는 이처럼 학생들이 이미 배운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퇴보를 초래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형편이 안 좋은 가정의 학생이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거나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바람에 학교를 결석하는 확률이 훨씬 크고 이는 기말 시험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부유한 가정에서 온 학생보다 소수자 및 저소득 가정에서 온 학생들의 학교수업 결석은 더 크고 장기적인 경향(일년 수업일 10% 이상 결석)이 있어서 가정형편에

따라 학업성취에 차이가 나타났다(Whitney & Liu, 2017).

이렇게 학교를 다니지 않은 기간 동안 가정배경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는 바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학생들의 인지 발달과 격차 완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이번 학교 폐쇄 정책으로 가정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충해주던 학교의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에 교육 성취도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예측이 많아지면서 관련된 분석 연구와 지원방안 탐색도 진행되고 있다. 연구자가 케냐에서 5000 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사태 이후 9 개월에 걸친 학교 폐쇄 기간 동안 케냐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고 학생의 성별,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가난한 가정에서 온 학생들은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위해 추가적인 노동 지원을 제공해야 되니까 학교 폐쇄 기간에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한다(Cameron E. et al, 2002). Emiliana Vegas(2022)는 콜롬비아 국립교육평가연구소(ICFES)의 학생 성적 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 19 이전 5 년(2014-16019)과 직후 2 년(2020-2021) 동안 콜롬비아 11 학년 학생들의 읽기, 수학, 영어 등 종합적인 성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학교 폐쇄 기간 동안 코로나 19 가 학생들의 학습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은 학업에 더 큰 손실을 당했고, 빈곤한 가정에서 온 학생보다 사회경제적 우위 가정에서 온 학생은 오히려 학업적 손실을 더 많이 겪었는데 이에 콜롬비아에서 부유한 학생들이 보다 질 높은 학교를 다닐 가능성이 높아서 학교 폐쇄가 그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Hans Dietrich. et al (2020)는 2020 년 독일에서 코로나 19 로 인한 학교 폐쇄 기간 동안 학생들이 홈스쿨링(home schooling)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의 차이에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부의 직업과 교육수준을 독립변수로 여겨 학교 폐쇄 기간 동안 학생들이

집에서 하루에 공부 시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집에서의 객관적 학습환경, 외부에서 받은 사회적 지원과 교사 지원의 강도를 매개변수로 정하여 분석한 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더 나아가 아이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2020 년에 수행된 경기도교육청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생 간 학습 격차가 더 커졌다'는 응답이 80% 이상,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45% 수준으로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백병부·정재엽, 2021). 또한 서울시교육청(2021)은 같은 학교 내에 학업성취 등급 비율 변화를 통해 코로나 19 전후 학력 격차 양상 및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 코로나 19 이후 학교 내 학력 격차 및 학력 양극화가 확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 19 전후 커진 학력격차가 이미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었으니 이에 새로운 영향요인 분석, 또는 영향이 발생하는 경로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선행연구들에 의해서 코로나 19 로 새롭게 재구조화된 교육환경, 특히 학교교육 방식의 전환이 가장 주목받을 만한 요인이라고 하며 그중 원격등교 정책하에 학업성취에 있어 온라인 수업을 위한 도구의 확보와 같은 지표로 원격교육을 측정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원격교육의 배경에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자장비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독립적인 학습공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러한 조건의 구비 여부 및 활용능력 수준이 계층별로 불평등이 상당히 있기 때문이다(Almaiah et al., 2020; Di Pietro et al., 2020). 독일에서 학교 폐쇄 기간 동안 집에서의 객관적 학습환경(조용하는 공간, 학습 도구 등)은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 더 나아가 아이의 성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고(Hans Dietrich. et al, 2020), 한국에서도 연구자가 경기도 소재 초·중고를 대상을 한 설문조사에서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인터넷 속도 등 온라인 수업 환경에 기초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박미희, 2020). 이는 빈곤가구가 아니라 비(非)빈곤가구에서만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장치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다는 결과(김지우 외, 2021)와 일치한다. 또한, 2018 년도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 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자원의 부족 및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의 결여를 겪은 학생들은 유의한 수준의 인지적 손실을 경험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이러닝(E-learning) 수업에서도 디지털 자원과 공간 부족을 통해 더욱 큰 교육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Murat and Bonacini, 2020).

다시 정리하자면 코로나 19 이후 학력격차 심화에 공감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밝힌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는데(김성남·김남희, 2020; 이병민 외,2020; De Coninck, D., Matthys, K., & Van Lancker, W. 2022), 한국에서는 원격교육 상황을 하나의 변수로 실제 학업성취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력격차 실태를 밝힌 연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학생이 집에서 학교 온라인 수업을 지지해 주는 객관적인 여건을 전자기기, 인텃넷 연결, 독립된 공간 세가지 척도로 측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3 학업성취에 성별 차이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전체적으로 보면 학업성취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차이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많고 결과는 연구 대상의 연령, 학급 및 기타 개인 특성, 과목별 학업성취에 대한 데이터 수집, 심지어 학업성취에 대한

다른 평가 기준의 설정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첫 번째로 학업성취에 남녀차이가 없다. 학업성취도의 차이에 관한 학자의 연구 결과, 공대 여학생과 남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승희, 2010). 두 번째로 학업성취에 압도적인 성적인 우세가 나타나서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고 한다. 예를 들어, TIMSS 와 PISA 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성차는 다른 참가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다는 연구가 있다(최경희, 2008). 또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인 NAEA 2009 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2009 모두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상위 수준 비율이 낮았으며, 읍면 지역에서는 상위 수준의 비율이 낮고 하위 수준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임해미 외, 2012). 이와 비슷하게 여성의 학력성취가 남성의 그것에 비해 불리하다고 본다고(Lee, 1998)하며, PISA 2012 에 따라 수학 내용의 모든 하위 요소에서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고 한다(송미영 외, 2014). 셋 번째로 남녀가 각자 다른 면에서 학업성취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학업성취에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고 한다. 예컨대 TIMSS 1999 에 의하여 남학생은 공간적 추론, 넓이의 계산, 지도 읽기 등 문항에서 우위를 보였고 여학생은 자연수, 분수, 소수의 사칙연산을 요구하는 문항과 같이 정형화된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문항에서 우위를 보였다고 기술한다(조윤동, 2016).

더 나아가 학생이 본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어떤 학자가 초등학교 4, 5, 6 학년 중 최상위층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읽기, 국어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여 여학생들은 읽기와 국어 영역에서 남학생들은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높은 자신감을 보였으며 남녀 학생은

과목에 따라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서 성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Olszewski-Kunilius & Turner, 2002). 이와 비슷하게 어떤 학자가 남학생과 여학생 간 학업성취도 차이를 연구했을 때 국어와 영어에 대한 태도는 모든 학교급에서 여학생이 더 높았고, 그 차이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수학에는 남학생이 더 높았고, 그 차이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고 발견되었다(KICE, 2012,2). 하지만 Kramaer(1991)에 따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은 보편적으로 자기 인식에 대해 저평가를 가지고 특히 영재 여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과학 성취 능력에 대해 평가 절하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신동희, 2008).

일반적으로 학업성취에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설명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중 개인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개인적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여학생이 성공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성실하며 복종적이어야 한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학생의 행동은 단정적이고 호기심과 의문이 많으며 활동적인 경향이 있어서(Walker & Mehr, 1992) 이러한 차이는 결국 학습 성과 속에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 차원에서는 교사나 부모는 이러한 널리 받아들여지는 남녀의 개성 차이에 따라 학생의 행동을 장려하거나 저지하곤 해서(Gilligan, 1982; Silverman, 1993) 이러한 성별 차이가 고착화되거나 심지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외에는 교사가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보편적인다는 지적이 흔하고 학교 수업에서 교사와 관심, 교사와의 상호 작용, 칭찬 등은 남학생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학생은 성취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는다(Eccles & Blumenfeld, 1985). 또한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학업성취 간 상관 관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전제되어

남녀대학생들 부모의 기대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는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들은 부모가 자신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느끼고 있었고 남학생들은 부모가 성공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고 느꼈다고 한다(Manis et al., 1989). 사회 측면에서는 여자가 항상 “직업 대 가정”의 선택을 직면하고 주로 가정을 선택된다(Metha rt al., 1989). 이처럼 여자가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때 본인의 흥미보다 사회의 문화적 의무를 더 중요시하게 되고 또한 이때문에 직장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성공한 과학자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Kelly, 1993) 좋은 직업에서 여성이 대표되어 역할 모델을 찾기 어렵다면 여학생들은 ‘일이냐 직장이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Matayas & Dix, 1992) 학업성취를 추구하는 동력을 잃기 쉬어진다.

제 3 장 연구방법

3.1 연구자료

2020 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한국 여성가족부가 2020 년 11 월 2 일부터 2021 년 2 월 21 일까지 한국에서 만 9~24 세 청소년 가구 5,027 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주로 청소년의 건강과 주관적 삶의 질, 존중과 가치, 참여 및 인식, 학습과 활동, 진로 및 직업탐색, 사회 진입 및 이행, 코로나 19 이후 청소년 삶의 변화, 응답자 특성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자료를 가공하여 사용되었다. 변수는 선행연구의 기반으로 설문지에서 추출하고 연구 대상은 대도시에서 주거하는 13~18 세 응답자로 구성된

836 개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자의 기본적인 분포는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 3-1> 분석대상자의 기본적 분포

구분	문항	빈도(명)	비중(%)
동네에는 산책하는 곳	없다	131	15.7
	있다	705	84.3
동네에는 운동하는 공간	없다	248	29.7
	있다	588	70.3
동네에는 운동기구	없다	235	28.1
	있다	601	71.9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전혀 하지 않는다	41	4.9
	30 분 미만	471	56.3
	1 시간 미만	234	28
	2 시간 미만	71	8.5
	2 시간 이상	19	2.3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	전혀 하지 않는다	16	1.9
	30 분 미만	103	12.3
	1 시간 미만	302	36.1
	2 시간 미만	269	32.2
	2 시간 이상	146	17.5
집에 늦게 들어와도 부모가 관심이 없다	매우 그렇다	22	2.6
	그런 편이다	61	7.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3	13.5
	전혀 그렇지 않는다	640	76.6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경험	매우 그렇다	22	2.6
	그런 편이다	61	7.3
	그렇지 않은 편이다	81	9.7
	전혀 그렇지 않는다	672	80.4
전자기기	없다	14	1.7
	있다	822	98.3
인터넷 연결	없다	14	1.7

	있다	822	98.3
독립된 공간	없다	65	7.8
	있다	771	92.2
성별	여자	432	51.7
	남자	404	48.3
가정 월평균 소득	100~200w	19	2.3
	200~300w	26	3.1
	300~400w	85	10.2
	400~500w	260	31.1
	500~600w	221	26.4
	600w 이상	225	26.9
학업성취 평가	하위 20%	24	2.9
	중하위 20%	47	5.6
	중간 20%	364	43.5
	중상위 20%	375	44.9
	상위 20%	26	3.1
가구 형태	양부모 가정	821	98.2
	한부모 가정	15	1.8
지역 크기	대도시	836	100
연령대	13~18 세	836	100
합계		836	100

3.2 변수선정

이번 연구의 종속변수는 학생이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로 선정되었으며 연구자가 본인의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1=매우 못한다”에서부터 “5=매우 우수하다”까지 5 분위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 독립변수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해당하는 변수들과 부모-자녀의 관계에 해당하는 변수들, 사교육과 학교 원격 교육 여건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 변수에는 가정의 월평균 소득과

주거환경을 택하였는데 소득은 6 분위로 구분하였으며, 주거환경은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산책, 운동 공간과 운동기구의 유무(1=있다, 0=없다)로 사용하였다.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과 가정내 방임 정도로 측정하였다.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1=전혀 하지 않는다'에서부터 "5=2 시간 이상"까지 5 분위로 구분하였으며, 방임 정도는 "1=매우 그렇다"에서부터 "4=전혀 그렇지 않는다"까지 4 분위로 구분하여 두 하위변수의 가중 산술 평균을 구하였다. 사교육 변수는 일주일에 학교, 교육부, 교육청, EBS 이외의 다른 곳에서 학원 또는 과외로 사교육을 받은 총 시간으로 축정하였고, 학교 원격 교육 여건은 유럽연합(EU)에서 청소년 지표(youth index)를 위한 실태조사에서 활용한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문항을 참고한 것이며(European Union, 2016: 213),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자기기와 독립된 공간(1=있다, 0=없다), 그리고 좋은 인터넷 연결(1=좋다, 0=안 좋다)을 사용하였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3-2>와 같고, 각 변수별 기술적 통계는 다음 <표 3-3> 과 같다.

<표 3-2>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유형	변수		변수 설명
	변수	하위 변수	
종속변수	본인이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 평가		1.현재 학업 성적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①매우 못한다 ②못하는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우수한 편이다 ⑤매우 우수하다
독립변수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가구 월평균 소득	2.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①100 만원 미만 ②100~200 만원 미만 ③200~300 만원 미만 ④300~400 만원 미만 ⑤400~500 만원 미만 ⑥500~600 만원 미만 ⑦600 만원 이상
		주거 환경	3.자신이 사는 동네에 관한 질문: 3-1. 내가 사는 동네에는 산책할 수 있는

			곳(공원, 산책로 등)이 있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3-2. 내가 사는 동네에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운동장, 농구장, 축구장 등)이 있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3-3. 내가 사는 동네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철봉, 어깨 근육풀기 운동기구, 좌식 자전거 운동기구 등)가 설치되어 있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부모-자녀 관계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	4.주중에 매일 부모님과 함께 얼마나 시간(대화 시간 포함)을 보냅니까? 4-1. 아버지 ①전혀 하지 않는다 ②30 분 미만 ③1 시간 미만 ④2 시간 미만 ⑤2 시간 이상 4-2. 어머지 ①전혀 하지 않는다 ②30 분 미만 ③1 시간 미만 ④2 시간 미만 ⑤2 시간 이상
		가정내 방임 정도	5.부모님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돌봅니까? 4-15.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①전혀 그렇지 않는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사교육	사교육 시간	*학교, 교육부, 교육청, EBS 이외의 다른 곳에서 제공하는 학습지나 강의(예: 방문 학습지, 시설 인터넷 강의, 학원 및 과외수업 등) 6.최근 1 년(2019.6.1~ 2020.5.31)동안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 수업, 학습지 과외 등을 받은 적이 이다면, 총 몇 시간입니까?

			학원 또는 과외 일주일 총시간(소수점 이하는 없애고 기입합니다.) 일주일 총____ 시간
	학교 원격 교육	원격 교육의 개관적인 여건	7.코로나 이후 자신의 집에 다음의 것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6-1.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자기기(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①그렇다 ②아니다 6-2.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인텃넷 연결 ①그렇다 ②아니다 6-3.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 ①그렇다 ②아니다
기타	성별		①남자 ②여자
	가구 구성		①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 ②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 ③기타

<표 3-3> 연구에 활용하는 각 변수별 기술통계 결과

변수				평균	표준편차	비고
독립변수	가정의 경제적 수준	주거환경	전자기기	0.843	0.364.	0=없다; 1=있다
			인터넷 연결	0.703	0.457	0=없다; 1=있다
			독립된 공간	0.719	0.450	0=없다; 1=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		5.571	1.203	1=100 ~ 200w; 2=200 ~ 300w; 3=300 ~ 400w; 4=400 ~ 500w; 5=500 ~ 600w; 6=600w 이상

	부모-자녀 관계	부와 함께 보내는 시간	2.469	0.809	1=전혀 하지 않는다; 2=30 분 미만; 3=1 시간 미만; 4=2 시간 미만; 5=2 시간 이상
		무와 함께 보내는 시간	3.510	0.981	1=전혀 하지 않는다; 2=30 분 미만; 3=1 시간 미만; 4=2 시간 미만; 5=2 시간 이상
		가정 내 방임 정도	3.659	0.711	연속 변수
	사교육	사교육 시간	10.357	5.770	연속 변수
	학교 원격교육	전자기기	0.983	0.128	0=없다; 1=있다
		인터넷 연결	0.983	0.128	0=안 좋다; 1=좋다
		독립된 공간	0.922	0.268	0=없다; 1=있다
	성별		0.483	0.500	0=여자; 1=남자
종속 변수	학생이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3.397	0.766	1=매우 못한다; 2=못하는 편이다; 3=보통이다; 4=우수한 편이다; 5=매우 우수하다

또한, 학업성취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의 수준별 학생분포는 <표 3-4>와 같다. 남녀 학생들 간에 성취도 평가의 분포를 살펴보면 매우 못하거나(3.7%) 못하는 편(5.9%)이라고 평가하는 집단에서 남학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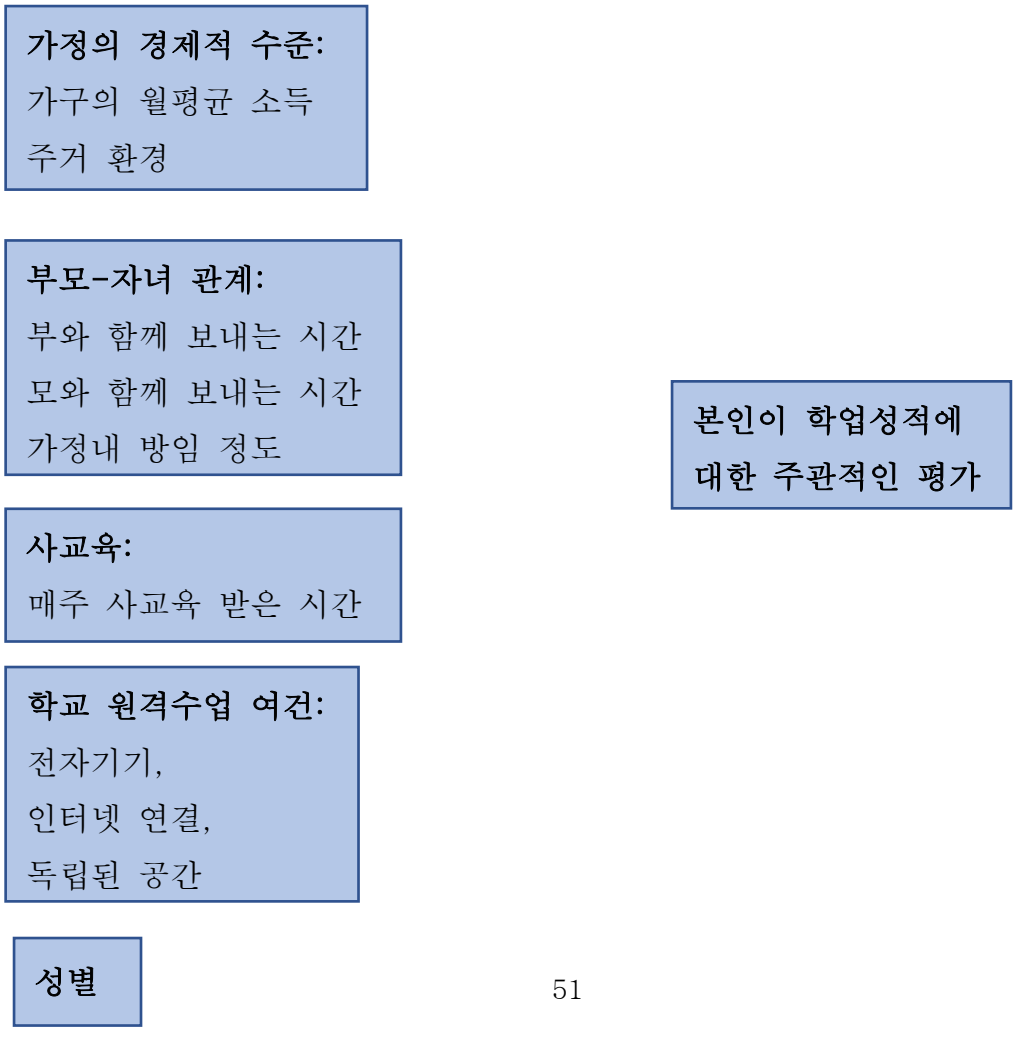
비중이 높았고, 우수하거나(45.3%) 매우 우수하다(3.4%)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여학생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러한 분포도에는 일정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3-4>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수준별 학생분포(N=836)

성별	매우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우수한 편이다		매우 우수하다		합계	
	N	%	N	%	N	%	N	%	N	%	N	%
남	15	3.7	24	5.9	175	43.3	179	44.3	11	2.7	432	100
여	9	2	23	5.3	189	43.7	196	45.3	15	3.4	404	100
계	24	2.8	47	5.6	364	43.5	375	44.8	26	3.1	836	100

3.3 분석모형

<그림 3-1> 학업성취 평가에 영향요인 관련변수 모형



3.4 가설 및 연구 설계

가. 연구 가설

1.성별에 따라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차이가 있다.

2.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자녀의 관계, 사교육과 학교 원격수업 여건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3.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자녀의 관계, 사교육과 학교 원격수업 여건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미친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나. 연구설계

이번 연구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 영향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변수 간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또한 연구 모형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종속변수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영향을 미치므로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모형의 적합성 판단, 회귀모형의 설명력 측정, 회귀계수의 유의성 판단 및 회귀계수의 크기 해석을 통한 가설 검증의 순서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먼저 사전 단계에서 각 변수들의 빈도를 분석하고 기술 통계량 분석을 하였다. 그 다음에는 척도가 2 개인 변수에 대해 T-검정, 척도 3 개 이상인 변수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차이 검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여 결론을 내도록 한다.

제 4 장 연구결과 및 분석

4.1 차이 검정

설문조사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집단 간 차이분석 방법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 및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이다. t-검정은 가설의 독립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변수가 연속형일 때 두 집단 이하의 평균을 비교할 수 있는 검정 방법이며 일원분산분석은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할 수 있는 검정 방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네에 산책하는 공간이 있는지, 운동공간이 있는지, 운동기구가 있는지, 원격수업을 하기에 전자기기가 있는지, 인터넷 속도가 좋은지 나쁜지, 독립된 학습공간이 있는지, 성별은 2 분 간격 변수이며,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 가구 월평균 소득은 집단 변수이므로 SPSS26.0 을 사용하여 독립 표본 t 검정 및 일원 분산 분석을 수행하여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정한다.

가. T-검정

T-검정을 통해서 본인이 사는 동네에는 산책할 수 있는 곳(공원, 산책로 등)이 있는지 없는지 간에 학업성취 평가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알 수 있으며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집단 사이 학업성취 평가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744$, $p>0.05$).

<표 4-1> 학업성취 평가에 두 집단 간에 평균차이 검정

동네에는 산책하는 곳	N	M	SD	t	p
없다	131	3.290	0.809	-1.744	0.082
있다	705	3.417	0.757		

T-검정을 통해서 본인이 사는 동네에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운동장, 농구장, 축구장 등)이 있는지 없는지 간에 학업성취 평가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알 수 있으며 <표 4-2>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집단 사이 학업성취 평가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147, p>0.05).

<표 4-2> 학업성취 평가에 두 집단 간에 평균차이 검정

동네에는 운동공간	N	M	SD	t	p
없다	248	3.391	0.817	-0.147	-0.147
있다	588	3.400	0.744		

T-검정을 통해서 본인이 사는 동네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철봉, 어깨 근육풀기 운동기구, 좌식 자전거 운동기구 등)가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간에 학업성취 평가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알 수 있으며 <표 4-3>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집단 사이 학업성취 평가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037, p>0.05).

<표 4-3> 학업성취 평가에 두 집단 간에 평균차이 검정

동네에는 운동시설	N	M	SD	t	p
없다	235	3.353	0.810	-1.037	0.300
있다	601	3.414	0.748		

T-검정을 통해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자기기(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가 있는지 없는지 간에 학업성취 평가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알 수 있으며 <표 4-4>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집단 사이 학업성취 평가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506, p>0.05).

<표 4-4> 학업성취에 두 집단 간에 평균차이 검정

전자기기	N	M	SD	t	p
없다	14	3.500	1.019	0.506	0.613
있다	822	3.395	0.762		

T-검정을 통해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연결이 있는지 없는지 간에 학업성취 평가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알 수 있으며 <표 4-5>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집단 사이 학업성취 평가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0.858, p>0.05).

<표 4-5> 학업성취 평가에 두 집단 간에 평균 차이 검정

인터넷 연결	N	M	SD	t	p
안좋다	14	3.571	1.016	0.858	0.858
좋다	822	3.394	0.762		

T-검정을 통해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간에 학업성취 평가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알 수 있다. <표 4-6>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집단 사이 학업성취 평가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t=-2.165, p<0.05), 독립된 공간 있는 집단의 학업성취 평가가 없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6> 학업성취 평가에 두 집단 간에 평균 차이 검정

독립된 공간	N	M	SD	t	p
없다	65	3.200	0.795	-2.165	0.031
있다	771	3.414	0.762		

T-검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간에 학업성취 평가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알 수 있으며 <표 4-7>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집단 사이 학업성취 평가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0.858, p>0.05).

<표 4-7> 학업성취 평가에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 검정

성별	N	M	SD	t	p
여자	432	3.428	0.740	1.214	0.225
남자	404	3.364	0.793		

나. 일월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표 4-8>에서 주중에 매일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얼마나 시간(대화 시간 포함)에 학업성취 평가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알 수 있으며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따라 학업성취 평가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9.211, p<0.001). 사후검정을 위하여 다중 비교를 해본 결과, 아버지와 매일 2 시간 이상 함께 보내는 집단은 1 시산 미만, 30 분 미만, 그리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집단보다 학업성취 평가가 높으며, 2 시간 미만과 1 시간 미만의 집단의 학업성취 평가는 30 분 미만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부와 보내는 시간에 따른 학업성취 평가의 평균차이 검정

부와 보내는 시간	N	M	SD	F	p
전혀 하지 않는다	41	2.902	0.860		
30 분 미만	471	3.270	0.765		
1 시간 미만	234	3.581	0.690	19.211	0.000
2 시간 미만	71	3.775	0.614		
2 시간 이상	19	3.947	0.621		

<표 4-9>에서 주중에 매일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얼마나 시간(대화 시간 포함)에 학업성취 평가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알 수 있으며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서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따라 학업성취 평가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1.973$, $p<0.001$). 사후검정을 위하여 다중 비교를 해본 결과, 어머니와 매일 2 시간 이상 함께 보내는 집단과 2 시간 미만의 집단은 1 시산 미만, 30 분 미만, 그리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집단보다 학업성취 평가가 높으며, 1 시간 미만의 집단의 학업성취 평가는 30 분 미만의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모와 보내는 시간에 따른 학업성취 평가의 평균차이 검정

모와 보내는 시간	N	M	SD	F	p
전혀 하지 않는다	16	2.688	1.014		
30 분 미만	103	2.952	0.784		
1 시간 미만	302	3.232	0.815	31.973	0.000
2 시간 미만	269	3.621	0.615		
2 시간 이상	146	3.719	0.560		

<표 4-10>에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다른 집단 간에 학업성취 평가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알 수 있으며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서 가구 월평균 소득에 따라 학업성취 평가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1.938, p<0.001). 사후 검정을 위하여 다중 비교를 해본 결과, 한달에 평균 소득 5 백만원 이상인 집단은 5 백만원 미만의 집단보다 학업성취 평가가 높으며, 3 백만원에서 5 백만원까지인 집단의 학업성취 평가는 3 백만원 미만의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가구 월평균 소득에 따른 학업성취평가 의 평균차이 검정

가구 월평균 소득	N	M	SD	F	p
100～200w	19	2.368	0.895	21.938	0.000
200～300w	26	2.462	0.859		
300～400w	85	3.271	0.892		
400～500w	260	3.335	0.761		
500～600w	221	3.516	0.651		
600w 이상	225	3.596	0.635		

4.2 상관관계분석

상관분석은 양적인 두 변수간의 관계가 유의한지를 확인하고 선형 관계가 있는 범위를 표현하는 통계적 측도이다. 통계적 유의성은 p 값으로 나타내고 유의확률도는 유의수준 0.05 보다 낮으면 상관 계수에 별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상관 계수는 -1~+1 범위에 있고 r 로 표시되는데 유의한 상관관계를 구한 후 상관 계수를 통해 해당 강도를 살펴볼 수 있다. r 이 값 0 에 근접할수록 선형 관계가 약해지는 것이고 값 1 에 근접할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강해지며 두 변수 값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r 이 값 -1 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강해지고 여기서 다른 변수 값이 감소할 때 한 변수 값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상관관계는 2 개의 키 숫자인 r = 및 p =로 작성되어야 하며 r 은 -1~1 사이의 0 이 아닌 값을 가진 동시에 p 는

0.05 보다 낮아야 두 변수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r 값은 관계의 강도를 수량화하고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서도 상관관계 여부를 검정하는데 p 값은 표본에서 관측한 것을 기반으로 모집단 상관 계수가 0 과 다르다는 유의미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대부분 변수가 순위변수(ordinal variable)이기 때문에 Spearman 상관 계수를 쓰도록 한다.

<표 4-11>에 따르면 학업성취 평가는 동네에는 산책하는 곳이 있는 여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062, p>0.05). 학업성취 평가는 동네에는 운동하는 곳이 있는 여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004, p>0.05). 학업성취 평가는 동네에는 운동기구가 있는 여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035, p>0.01). 학업성취 평가는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자기기가 있는 여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019, p>0.05). 학업성취 평가는 집에서 원격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연결이 있는 여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034, p>0.05). 반대로, 학업성취 평가는 주중에 매일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r=0.294, p<0.01). 학업성취 평가는 주중에 매일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r=0.350, p<0.01). 학업성취 평가는 부모가 자녀에 관심 정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r=0.164, p<0.01). 학업성취 평가는 매주 사교육을 받은 시간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r=0.289, p<0.01). 학업성취 평가는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는 여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r=0.084, p<0.05). 학업성취 평가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r=0.223$, $p<0.05$). 학업성취 평가는 성별과 양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r=-0.042$, $p<0.05$).

<표 4-11>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동네 산책하는 곳	1												
2.동네 운동하는 곳	0.534**	1											
3.동네 운동기구	0.638**	0.701**	1										
4.부와 함께 보내는 시간	0.107**	0.021	0.067	1									
5.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0.065	0.012	0.035	0.416**	1								
6.가정내 방임정도	-0.168**	-0.232**	-0.230**	0.109**	0.121**	1							
7.사교육 시간	0.018	-0.150**	-0.080*	0.087*	0.054	0.069*	1						
8.원격수업 전자기기	-0.031	-0.024	0.001	0.038	0.045	-0.011	-0.001	1					
9.원격수업 인터넷 연결	-0.005	-0.003	0.022	0.016	0.026	-0.011	0.017	0.855**	1				
10.원격수업 독립된 공간	-0.051	-0.042	-0.023	-0.121**	-0.139**	-0.005	0.004	0.171**	0.171**	1			
11.가구 월평균 소득	0.134**	0.075*	0.152**	0.103**	0.138**	0.022	0.089**	0.024	0.014	-0.044	1		
12.성별	-0.011	0.062	0.062	-0.049	-0.063	0.238**	-0.008	0.014	0.033	-0.041	-0.019	1	
13. 학업성취 평가	0.062	-0.004	0.035	0.294**	0.350**	0.164**	0.289**	-0.019	-0.034	0.084*	0.223**	-0.042	1

*p<0.05,**p<0.01

4.3 회귀분석 및 가설검증

변수의 수 및 종류에 따라 하나의 독립변수가 있는 경우를 단순회귀분석, 둘 이상의 독립변수를 다중회귀분석이라고 한다. 상관분석은 변수 간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탐구하지 않고 두 변수 사이에 상호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만 분석했으며, 회귀분석은 변수의 인과관계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가정배경 변수에 해당되는 (1)가구 월평균 소득, (2)동네에 산책하는 곳, (3)동네에 운동하는 공간 (4)동네에서 청소년들이 쓰는 운동기구와 부모-자녀의 관계에 해당되는 (5)주중에 매일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 (6)주중에 매일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 및 (7)가정내 방임 정도, 그리고 사교육 상황을 설명하는 (8)매주 사교육을 받은 시간, 또한 (9)전자기기, (10)인터넷 연결, (11)독립된 공간이 포함된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객관적 여건, 마지막으로는 (12)성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에 의해 종속변수가 설명되는 설명력으로써 <표 4-12>에서는 34.0%라고 할 수 있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 유의미한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6.838$, $p<0.001$). 한편, Durbin-Waston 통계량은 1.913 으로 2 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각 경로에 유의성으로 확인한 결과 일단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해당하는 변수들 중 주거환경을 설명하는 동네에는 산책하는 곳이 있는 여부($\beta=-0.014$,

p>0.05), 동네에는 운동하는 곳이 있는 여부(β=0.071, p>0.05), 그리고 동네에는 운동기구가 있는 여부(β=0.033,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해당하는 또 하나 변수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학업성취 평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β=0.225, p<0.001). 부모-자녀의 관계에 해당하는 변수들 중 주중에 매일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β=0.138, p<0.001), 주중에 매일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β=0.219, p<0.001),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 관심 정도(β=0.241, p<0.001)가 모두 학업성취 평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변수에 해당하는 매주 사교육을 받은 시간(β=0.266, p<0.001)은 학업성취 평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가정의 객관적 여건에 해당하는 변수 중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자기기(β=-0.002, p>0.05)의 유무, 원격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연결의 유무(β=-0.053, p>0.05)를 제외한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의 유무(β=0.150, p<0.001)만 학업성취 평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별은 학업성취 평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0.071, p<0.05). 다시 정리하자면, 유의한 변수 대부분 양수로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 수록 학생이 본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다. 주중에 매일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 수록 학생이 본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다. 주중에 매일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 수록 학생이 본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다. 부모가 자녀에 관심 정도가 높을 수록 학생이 본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다. 매주 사교육을 받은 시간이 많을 수록 학생이 본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다.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을수록 학생이 본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다.

마지막으로 성별은 음수로써 여자일 수록 본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좋아져서 성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2>학업성취 평가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β	SE	t	p
		0.248	0.975	0.330
성별	-0.071*	0.045	-2.403	0.016
동네에는 산책하는 곳	-0.014	0.079	-0.370	0.711
동네에는 운동하는 공간	0.071	0.068	1.754	0.080
동네에는 운동기구	0.033	0.076	0.744	0.457
가구의 월평균 소득	0.225***	0.018	7.761	0.000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	0.138***	0.030	4.423	0.000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	0.219***	0.025	6.949	0.000
가정내 방임 정도	0.241***	0.033	7.822	0.000
사교육 시간	0.266***	0.004	9.152	0.000
원격수업에는 전자기기	-0.002	0.325	-0.039	0.969
원격수업에는 인터넷 연결	-0.053	0.325	-0.977	0.329
원격수업에는 독립된 공간	0.150***	0.083	5.155	0.000

R2=0.349，AdjR2=0.340，F=36.838***，p<0.001, D-W=1.913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성별은 학업성취 평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자일 수록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좋아져서 가설 1 은 채택되었다.

<표 4-13> 연구모형 가설 1 검증 결과

구분	가설	채택 여부
가설 1	성별에 따라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차이가 있다.	채택

또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학업성취 평가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가정에 주거환경(산책하는 공간, 운동하는 공간, 운동기구)은 학업성취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자녀의 관계에 해당하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및 자녀에 관심 정도가 모두는 학업성취 평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교육 사간이 학업성취 평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학교 원격수업 여건에 해당하는 독립된 학습 공간도 학업성취 평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머지는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자기기와 인터넷 연결이 학업성취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설 2 는 일부 채택되었다.

<표 4-14> 연구모형 가설 2 검증 결과

구분	가설	채택 여부
가설 2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자녀의 관계, 사교육과 학교 원격수업 여건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채택

이처럼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영향요인별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차이를 밝혀 보기 위해 여자와 남자 집단을 구분하여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교육과 원격교육의 여건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4-15> 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여학생들은 전체 표본과 유사한 관계 영상을 보이고 있으나 남학생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주중 매일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61, $p>0.05$).

여학생들의 결과를 보면 일단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해당하는 변수들 중 주거환경을 설명하는 동네에는 산책하는 곳이 있는 여부(β=-0.013, p>0.05), 동네에는 운동하는 곳이 있는 여부(β=0.049, p>0.05), 그리고 동네에는 운동기구가 있는 여부(β=0.060,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해당하는 또 하나 변수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여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β=0.262, p<0.001). 부모-자녀의 관계에 해당하는 변수들 중 주중에 매일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β=0.216, p<0.001), 주중에 매일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β=0.125, p<0.001),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 관심 정도(β=0.278, p<0.001)가 모두 여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변수에 해당하는 매주 사교육을 받은 시간(β=0.252, p<0.001)은 여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가정의 객관적 여건에 해당하는 변수 중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자기기(β=-0.007, p>0.05)의 유무, 원격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연결의 유무(β=-0.037, p>0.05)를 제외한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의 유무(β=0.153, p<0.001)만 여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의한 변수 모두 양수로써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부모가 자녀에 관심 정도가 높고, 매주 사교육을 받은 시간, 주중에 매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을수록 여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들의 경우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해당하는 변수들 중 주거환경을 설명하는 동네에는 산책하는 곳이 있는 여부(β=-0.010, p>0.05), 동네에는 운동하는 곳이 있는 여부(β=0.097, p>0.05), 그리고 동네에는 운동기구가 있는 여부(β=-0.006,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해당하는 또 하나 변수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남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β=0.171, p<0.001). 부모-자녀의 관계에 해당하는 변수들 중 주중에 매일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β=0.061, p>0.05) 을 제외하는 주중에 매일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β=0.320, p<0.001),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 관심 정도(β=0.224, p<0.001)가 남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변수에 해당하는 매주 사교육을 받은 시간(β=0.291, p<0.001)은 남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가정의 객관적 여건에 해당하는 변수 중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자기기(β=-0.018, p>0.05)의 유무, 원격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연결의 유무(β=-0.060, p>0.05)를 제외한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의 유무(β=0.155, p<0.001)만 남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의한 변수 모두 양수로써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부모가 자녀에 관심 정도가 높고, 매주 사교육을 받은 시간, 주중에 매일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을수록 남학생의 학업성취가 좋아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15> 학업성취 평가에 영향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성별 차이

독립변수	여자		남자	
	β	t	β	t
동네에는 산책하는 곳	-0.013	-0.277	-0.010	-0.172
동네에는 운동하는 공간	0.049	0.921	0.097	1.531
동네에는 운동기구	0.060	1.047	-0.006	-0.081
가구의 월평균 소득	0.262	6.622***	0.171	3.982***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	0.216	5.070***	0.061	1.345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	0.125	2.855**	0.320	7.009**
가정내 방임 정도	0.278	6.377***	0.224	5.358***
사교육 시간	0.252	6.354***	0.291	6.727***
원격수업에는 전자기기	0.007	0.107	-0.018	-0.184
원격수업에는 인터넷 연결	-0.037	-0.541	-0.060	-0.588
원격수업에는 독립된 공간	0.153	3.894***	0.155	3.612***
R2	0.388		0.341	
AdjR2	0.372		0.323	
F	24.182***		18.460***	

*p<0.05,**p<0.01,***p<0.001

위에 분석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가구의 월평균 소득, 주중에 매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 부모가 자녀에 관심 정도, 매주 사교육을 받은 시간 그리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의 유무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더 나아 이러한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 계수에 대해 차이 검정을 하였다. <표 4-16>에서 보이는 듯이 여학생과 아버지 주중에 매일 보내는 시간이 남학생보다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beta1-\beta2=0.155$, $p<0.05$), 남학생과 어머니 주중에 매일 보내는 시간이 여학생보다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beta1-\beta2=-0.195$, $p<0.05$). 이외에는 부모가 자녀에 관심 정도($\beta1-\beta2=0.054$, $p>0.05$), 매주 사교육을 받은 시간($\beta1-\beta2=-0.039$, $p>0.05$),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의 유무($\beta1-\beta2=-0.002$, $p>0.05$) 그리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beta1-\beta2=0.091$, $p>0.05$)은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성별에 따라 회귀계수 차이 검정

변수	β1(여자)	β2(남자)	β1-β2	t	p
부와 보내는 시간	0.216	0.061	0.155	2.551	0.011
모와 보내는 시간	0.125	0.320	-0.195	-3.605	0.000
가정내 방임 정도	0.278	0.224	0.054	-1.437	0.151
사교육 시간	0.252	0.291	-0.039	-1.745	0.081
독립된 공간	0.153	0.155	-0.002	0.126	0.900
가구 월평균 소득	0.262	0.171	0.091	1.506	0.132

이렇게 남자와 여자와 남자 집단을 구분하여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교육과 원격교육의 여건의 영향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여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가 가구의 월평균 소득, 부모가 자녀에 관심 정도, 매주 사교육을 받은 시간, 주중에 매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으며, 남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가 가구의 월평균 소득, 부모가 자녀에 관심 정도, 매주 사교육을 받은 시간, 주중에 매일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다. 즉 아버지 주중에 매일 보내는 시간이 여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남학생과 어머니 주중에 매일 보내는 시간이 여학생보다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3은 일부 채택되었다.

<표 4-17> 연구모형 가설 3 검증 결과

구분	가설	채택 여부
가설 3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자녀의 관계, 사교육과 학교 원격수업 여건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미친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부 채택

제 5 장 결론

5.1 연구결론 및 논의

위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는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있다. 둘째, 가구의 월평균 소득, 주중에 매일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또는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 부모가 자녀에 관심 정도, 매주 사교육을 받은 시간, 그리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 등 변수들은 학생이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 셋째, 주중에 매일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및 주중에 매일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학생의 학업성취 평가에 끼치는 영향에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런 결론으로부터 도출된 논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은 학업성취 평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으니 여자일 수록 본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 학업성취에 성별 차이가 뚜렷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최경희, 2008),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자기 인식에 대해 저평가를 가지고 성취 능력에 대해 평가 절하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Kramaer, 1991; 신동희, 2008)와 상이하다. 또한 학업성취에 성별 차이 관련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하는 결론과도 다르다(Lee, 1998, 임해미 외, 2012, 송미영 외, 2014). 코로나 시대 원격수업 환경하에 학업성취에 성별차이가 나타난 것을 보면 교사와 학부모들이 남녀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지도 방법을 계획하며 학교가 성별 특성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가 이에 지원을 해주며 기업들도 남성 중심의 기업문화를

없애고 여성에게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여 여학생들이 따라하는 역할 모델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다.

둘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학업성취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 수록 학생이 본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고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Jo Blanden Matthias, 2022; Shin 2001; Yang& Sung, 2006; Phang, 2004)). 이처럼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외계층에게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기울이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매주 사교육을 받은 시간이 학업성취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을 많이 받을 수록 학생이 본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사교육 경험이 많을 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다(장정희, 2002; 김진남, 2005, 김현진, 2007; 상경아·백순근, 2005; 박현정 외, 2008, 김은정, 2007; 양정호, 2007; 이명헌·김진영, 2005) 사교육 참여 정도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대부분 가정이 사교육을 피할 수 없고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가계소득이 사교육비 명목으로 사라진다는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특권층(고소득층) 자녀 ⇨ 고액의 사교육비 사용 ⇨ 자사고·특목고 진학 ⇨ 엘리트대학 진학(국비지원 집중) ⇨ 전문직·고소득직종 독점 ⇨ 특권층(고소득층) 유지'와 같이 사교육은 이미 교육 불평등 경로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 사교육 완전 금지라는 비현실적인 호소보다 그의 효과성을 크게 낮추어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부모-자녀 관계가 학업성취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일단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가 학업성취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록 학생이 본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참여와 기대가 자녀의 학습 태도와 성취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론과 일치한다(임해미, 2016; Kiss & Vukovic, 2021). 임해미(2016)는 PISA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 학부모의 자녀의 수학교육에 대한 태도와 기대가 자녀의 수학 학습 동기, 태도, 성취 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수학공부의 필요성을 인식하면 할수록 자녀도 역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수학을 공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s 와 Vukovic(2021)이 진행한 연구에서도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19 기간 원격수업 환경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참여하고 지원할수록 자녀의 수학성취도가 향상된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학생의 좋은 학업성취나 학업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형성하기 위해 부모의 노력은 중요하다고 본다. 부모의 높은 소득으로 유지되는 좋은 경제적 수준이 자녀 교육에 중요하지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의 학습 현황을 알아보고 향후 학습 계획이나 진로 선택 등에 도와 주고 자녀의 스트레스나 불안을 감소해 주는 부모의 노력이 없으면 안된다. 따라서 자녀가 좋은 학업성취를 얻거나 자신의 학업성취에 좋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부모가 지속적으로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함께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주중에 매일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은 여학생의 학업성취 평가만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남학생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니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록 여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주중에 매일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본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모두 영향을 미쳤는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Levine 과 Pantoja(2021)는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이 학습에 대한 태도와 동기, 성취 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역할자(key socializer)로서 영향을 주며, 이들이 끼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있다고 발견되었다. 이처럼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성차가 있다는 결과를 보면 코로나 19 로 인한 전면 비대면수업이 이루어졌던 학습환경에서 부모와 학업에 관련된 대화를 하고,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것은 여학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학교와 교육행정 당국은 부모의 지도·감독을 쉽게 받지 못한 학생을 확인하고 배려하며 여학생보다 남학생 집단에세 더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여섯째,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학업성취 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된 학습공간이 있을 수록 학생이 본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면 비대면 수업은 이전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많이 없어서 반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 19 가 다시 유행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전면적 혹은 부분적 비대면 수업이 재개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제언

이번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시행된 청소년종합실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생이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이런 변수에서 성별 차이를 규명하고, 학업성취 격차 하나의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계점도 있다.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항만 쓸 수 있어 본인이 의도한 변수를 추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보통 시험점수를 참고하여 내리지만 학생 개개인의 자신감이나 성격 등 개인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기도 해서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와 학업성취 자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은 한계점이. 또한 이번 설문조사는 가구 단위로 부모와 자녀를 조사대상으로 동시에 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설문 응답 데이터를 연계시켜 합쳐서 변수를 설명하면 더욱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에 설문 도구를 개발하여 보다 다양하고 적당한 변수를 추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본크기 조절하기 위해 특정지역과 일정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전체 학생들에게 적용하거나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다른 지역이나 연령대의 학생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UNICEF (2020): COVID-19 Response: Issue Brief - COVID-19 and Girls'Education in East Asia and Pacific

UNESCO (2021): #HerEducationOurFuture: keeping girls in the picture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crisis; the latest facts on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Thurow, L. C. (1975). Education and economic equality. The "inequality" controversy : schooling and distributive justice.

Coleman, J. S. (1966). Equal schools or equal students?. The Public Interest, 4, 70.

Van Lancker, W., & Parolin, Z. (2020). COVID-19, school closures, and child poverty: a social crisis in the making. The Lancet Public Health, 5(5), e243-e244.

Lahire B. (dir.). (2019),.Enfances de classe. De l'inégalité parmi les enfants, Paris, Seuil, 1232 p.

Heppt, B., Olczyk, M. & Volodina, A .(2022).Number of books at home as an. indicator of socioeconomic status: Examining its extensions and their incremental validity for academic achievement. Soc Psychol Educ 25, 903–928.

Davidson R, Gwatkin SR, Jhonson K, Suliman E, Wagstaff A, Amouzou A.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health, nutrition and population within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DC: World Bank; 2007.

Tiwari SC, Kumar A, Kumar A. (2005). Development & standardization of a scale. to

measure socio-economic status in urban & rural communities in India. Indian J Med Res. 122(4):309–14.

Pareekh U. (1981).Manual of socioeconomic status (rural). Mansayan, 32, Netaji. Subhash Marg, Delhi

Daly MC, Duncan GJ, McDonough P, Williams DR.(2002). Optimal indicators of. socioeconomic status for health research. Am J Public Health. Jul;92(7):1151-7. doi: 10.2105/ajph.92.7.1151. Erratum in: Am J Public Health 2002 Aug;92(8):1212. PMID: 12084700; PMCID: PMC1447206.

De Graaf, Nan Dirk, et al.(2000) "Parental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in the Netherlands: A Refinement of the Cultural Capital Perspective." Sociology of Education, vol. 73, no. 2, pp. 92–111. JSTOR, https://doi.org/10.2307/2673239. Accessed 2 Nov. 2022.

De Coninck, David, Koenraad Matthys, and Wim Van Lancker. (2022)."Distance. learning and school-related stress among Belgian adolesc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rontiers in Education. Vol. 7. Frontiers Research Foundation.

Lundberg, Shelly, Robert A. Pollak, and Jenna Stearns. (2016). "Family inequality: Diverging patterns in marriage, cohabitation, and childbear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0.2: 79-102.

Broadbent, J., & Poon, W. L. (2015).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 academic achievement in online higher education learning environments: A systematic review.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27, 1-13.

Nechyba, T. J. (2006). Income and peer quality sorting in public and private schools.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Education, 2, 1327-1368.

Blanden, J., Doepke, M., & Stuhler, J. (2022). Educational inequality (No. w2997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 Yuen, R. K., Merico, D., Bookman, M., L Howe, J., Thiruvahindrapuram, B., Patel, R. V., ... & Scherer, S. W. (2017). Whole genome sequencing resource identifies 18 new candidate genes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Nature neuroscience, 20(4), 602-611.

Patrinos, H. A., Vegas, E., & Carter-Rau, R. (2022). An Analysis of COVID-19 Student Learning Loss.

Anger, S., Dietrich, H., Patzina, A., Sandner, M., Lerche, A., Bernhard, S., & Toussaint, C. (2020). School closing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indings from German high school students. In IAB-Forum. Nuremberg: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of the Federal Employment Agency.

Di Pietro, G., Biagi, F., Costa, P., Karpiński, Z., & Mazza, J. (2020). The likely impact of COVID-19 on education: Reflections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and recent international datasets (Vol. 30275).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Almaiah, M. A., Al-Khasawneh, A., & Althunibat, A. (2020). Exploring the critical challenges and factors influencing the E-learning system usage during COVID-19 pandemic.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25(6), 5261-5280.

김위정, 정해진, 김승준, 이승연. (2020).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기전문화연구, 41(2), 3-35.

장상수. (2000). 교육 기회의 불평등: 가족 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FAL), 671-708.

이종재, et al. (2006). "한국교육의 발전 전략과 새로운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4(4): 1-26.

손준종. (2006). 교육 양극화의 개념, 유형, 동인에 관한 탐색적 논의. 한국교육학연구, 12(2), 31-58.

강창희, 박윤수 (2021). "사교육과 학생의 학업성취도 분포: 교육. 불평등에 대한 사교육의 함의." The Korean Economic Review 37(2): 287-326.

박균달, 김현진 (2012). "사교육 효과와 원인에 관한 메타 분석.". 교육논총 31: 74-1504.

장상수 (2000). "교육 기회의 불평등: 가족 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FAL): 671-708.

임지영, 김윤진, 박지우, 임규연. (202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실과교과서 SW 교육 단원 학습 문제 분석.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4(2), 1-14.

김현진. (2007). 가정배경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5(4), 485-508.

김희윤, 백학영. (2010).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동네효과 분석: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53-84.

신경주, 노선덕. (1990). 주거환경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2), 13-26.

김광혁, 신다은. (2012). 빈곤한 주거환경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 부부 및 가족갈등과 부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5(0), 1-21.

김현주, 이병훈. (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30(1), 125-148.

강승희. (2010). 공학계열 대학생의 성차: 학업 성취도, 일반적 자기효능감, 공학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13(4), 60-69.

박은숙, 장진태. (2012).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영어 사교육경험과 학업성취도 및 동기 연구. 중등영어교육, 5(2), 51-69.

한수경, 박재범, 손형국, 양정호. (2015).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이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생의 수학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21(1), 197-216.

김은정. (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5), 134-162.

신경주, 노선덕. (1990). 주거환경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2), 13-26.

김광혁, & 신다은. (2012). 빈곤한 주거환경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부부 및 가족갈등과 부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5, 1-21.

김희윤, & 백학영. (2010).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동네효과 분석: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53-84.

장미혜. (2002).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4), 223-251.

김현주, 이병훈. (2006).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배경의 영향: 성차이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1-17.

방하남, 김기헌.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8(2), 109-146.

김진영. (2007).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연령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3), 127-153.

이수정, 임현정. (2009).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사교육비 효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8(1), 141-166.

우원재, 김현진. (2017). 중·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유형에 따른 가구소득, 학교만족, 그리고 사교육비의 효과 분석. 중등교육연구, 65(1), 65-89.

박미희. (2020). 코로나 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0(4), 113-145.

김지우, 김나영, & 남재현. (2021). 코로나 19 와 불평등-코로나 19 가 아동의 인적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70(2), 167-195.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grasps the educational gap in Korean society during the era of COVID-19, measures the factors that widen the gap in educational achievement, and investigates how these factors are applied differently to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depending on gender.

To achieve this purpose, in this study, 836 cases composed of respondents aged 13 to 18 were analyzed in the comprehensive teenager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2020 targeting 5,027 adolescent household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first,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was confirmed in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and it was found that the more females, the higher the evaluation of their academic achievement. Second, household average monthly income, parents' interest in their children, time spent with father every day on weekdays, time spent with mother every day on weekdays, time spent with private tutoring each week, and independent learning space for distance learning at home. All of them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variables and had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subjectiv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Lastly, among these factors, only the time spent with the father every day during the week and the time spent with the mother every day during the week showed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ir effects on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Which means more time spent with fathers improved the evaluation of female students' educational achievement, but this had no effect on male students. It was analyzed that this significant effect was more.

This study illustrated the problem of expanding the education gap, which

continues to deepen in Korean society in the era of COVID-19, and also analyzed various influencing factors such as gender, family background, private education, and remote education. Therefore, it is helpful in identifying the path of educational inequality.

Key word : Corona-19, educational achievement, gender inequality, private education, online class, SES,